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

한국어 발음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머리말

최근 들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이미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내국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2010년 설립 이래, 경기도 지역의 국어사용 실태를 연구하고 지역 주민과 관공서·기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표준 어법을 교육하는 등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하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한국어 교사 연수회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사업 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앞장 서 왔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문화원이 그동안 쌓아 온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의 구체적 언어 사용 실태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습자는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문법과 발음을 익히고, 틀리기 쉬운 항목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연구와 개발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술 항목과 내용에 대해 일일이 검토하고 세심한 의견을 주신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와 이필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이 보다 좋은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오컴의 김영태 대표님과 편집부 여러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김태경

일러두기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은 오류 빈도가 높은 한국어 발음과 형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모음 발음 비교, 자음 발음 비교, 자주 틀리는 음운 현상, 자주 틀리는 이형태 교체 연습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 책의 각 항목은 단계적인 연습을 통해 정확한 발음과 형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각 항목의 서두에는 외국인이 보인 오류를 연습 문제로 만들어 학습 과제를 충분히 익히도록 했다.
- 각 항목은 연습 문제와 관련한 학습 개념을 설명하여 본격적인 연습 전에 발음과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 학습 개념은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을 통해 설명했고, 다양한 사진이나 표, 그림 등을 활용했다.
- 주요한 참조 사항이 있을 때 본문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 외국인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용어 해설을 마련하여 이를 설명했다.

차 례

I. 발음	4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모음)	5
이중모음의 발음	9
된소리와 거센소리	14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자음)	21
같은 소리가 나란히 올 때	26
받침 소리 내기	28
겹받침 소리 내기	30
다른 소리가 만날 때	36
'물고기'와 '불고기'	48
'수원역'과 '오이도역'	49
'깻잎'과 '깨소금'	50
'피어서'와 '퍼서'	51
 II. 형태	 52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이'	53
'자'와 '제'	54
헛갈리는 조사 형태들	56
헛갈리는 어미 형태들	62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규칙)	69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불규칙)	76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

I. 발음

- 5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모음)
- 9 이중모음의 발음
- 14 된소리와 거센소리
- 21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자음)
- 26 같은 소리가 나란히 올 때
- 28 받침 소리 내기
- 30 겹받침 소리 내기
- 36 다른 소리가 만날 때.
- 48 '물고기'와 '불고기'
- 49 '수원역'과 '오이도역'
- 50 '깻잎'과 '깨소금'
- 51 '피어서'와 '퍼서'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모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아기
- 2) 애기

설명 '아'는 '애'보다 턱을 좀 더 아래로 내리고 발음한다.

[아]와 [애/에]의 발음

- 1) [아]는 입을 크게 벌린다. 그리고 혀는 밑으로 내리고 발음한다.



아빠	다시
아이	라디오
나이	

- 2) [애]는 [아]보다 입을 조금 덜 벌리면서 옆으로 길게 퍼 발음한다. 그리고 혀끝은 아랫니 뒤에 붙인다.



애	노래
개	소개
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이마
- 2) 이마

설명 '이'는 '아'보다 턱을 좀 더 위로 올리고 발음한다.

[아]와 [이]의 발음

- 1) [아]는 입을 크게 벌린다. 그리고 혀는 밑으로 내리고 발음한다.



아내	바나나
아버지	고구마
좋아요	

- 2) [이]는 [아]보다 입을 옆으로 길게 벌리고 발음한다.



이리	고기
이미	어머니
이제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거기
- 2) 고기

설명 '오'는 '어'보다 입술을 더 내밀고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어]와 [오]의 발음

- 1) [어]는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입술을 편하게 두고 발음한다.



어깨	너무
어제	머리
어머니	

- 2) [오]는 [어]보다 입술을 더 내밀고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오빠	포도
오리	라디오
고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거리
- 2) 그리다

설명 '으'는 '어'보다 입을 덜 벌리고 발음한다.

[어]와 [으]의 발음

- 1) [어]는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입술을 편하게 두고 발음한다.



어서	그래서
너머	오징어
아버지	

- 2) [으]는 [어]보다 입을 덜 벌리고 발음한다.



으스스	어느
음식	다음
지금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오**리
- 2) **우**리

설명 '우'는 '오'보다 입을 덜 벌리고 발음한다.

[오]와 [우]의 발음

- 1) [오]는 입술을 작고 둥글게 한다. 그리고 혀끝은 밑으로 내리고 혀의 뒤쪽을 올려 발음한다.



오늘	포도
오빠	라디오
고기	

- 2) [우]는 [오]보다 입을 덜 벌리고 두 입술을 앞으로 내어밀면서 위쪽으로 올린다.



우리	구두
우유	두부
우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크**다
- 2) **키**

설명 '이'는 '으'보다 입을 좀 더 옆으로 길게 벌리고 발음한다.

[으]와 [이]의 발음

- 1) [으]는 입을 조금만 벌린다. 그리고 혀는 편안하게 두고 발음한다.



은	그냥
음식	가을
음악	지금

- 2) [이]는 [으]보다 입을 좀 더 옆으로 길게 벌리고, 턱을 앞으로 밀면서 발음한다.



이미	인기
이사	인사
이제	입술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미**모

2) **메**모

설명 '에'는 '이'보다 턱을 좀 더 아래로 내리고 발음한다.

[이]와 [에/애]의 발음

1) **[이]**는 입을 옆으로 길게 퍼서 벌리고 발음한다.



이	이유
비	나이
이마	아이

2) **[에]**는 [이]보다 입을 더 벌리고 발음한다.



게	어제
메뉴	에어컨
세수	쓰레기

이중모음의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약수
- 2) 약수

설명 '야'는 '이'와 '아'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야] 발음

[야]는 먼저 [이]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아]를 발음한다.

[이] + [아] = [야]

약
야구
양말
양말
삼푸
달걀
이야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애기
- 2) 애기

설명 '애'는 '이'와 '애'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애/예] 발음

[예]는 먼저 [이]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예]를 발음한다.

[이] + [예] = [예]

예보	애
예약	애기
예정	애기책
옛날	
예뻐요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벌**
- 2) **벌**

설명 '어'는 '이'와 '어'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여] 발음

[여]는 먼저 [이]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어]를 발음한다.

[이] + [어] = [여]

여수
여기
여름
여행
병원
저녁
여보세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과**자
- 2) **과**자

설명 '와'는 '우'와 '아'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와] 발음

[와]는 먼저 [우]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아]를 발음한다.

[우] + [아] = [와]

와요
과자
사과
생활
화장실
도와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깨**
- 2) **꽤**

설명 '왜'는 '우'와 '애'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왜/웨/외] 발음

[왜]는 먼저 [우]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애]를 발음한다.

[우] + [애] = **[왜]**

왜	웬	외국
꽤	웬일	외출
꽤꽤	웨이터	외국어
인쇄	웬만하면	외할머니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오리**
- 2) **요리**

설명 '요'는 '이'와 '오'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요] 발음

[요]는 먼저 [이]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오]를 발음한다.

[이] + [오] = **[요]**

표
요일
요즘
교실
무료
대표
음료수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저요
- 2) 쥐요

설명 '위'는 '우'와 '어'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위] 발음

[위]는 먼저 [우]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어]를 발음한다.

[우] + [어] = [위]

병원
여권
월요일
더워요
배워요
바뀌요
동물원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이
- 2) 위

설명 '위'는 '우'와 '이'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위] 발음

[위]는 먼저 [우]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이]를 발음한다.

[우] + [이] = [위]

귀
뒤
위층
취직
사위
뛰어요
쉬워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유리
- 2) 우리

설명 '유'는 '이'와 '우'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유] 발음

[유]는 먼저 [이]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우]를 발음한다.

[이] + [우] = [유]

유리
유명
유료
뉴스
휴일
이유
정류장
컴퓨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이사
- 2) 의사

설명 '의'는 '으'와 '이'를 이어서 발음하므로 입모양이 바뀐다.

[의] 발음

[의]는 먼저 [으] 소리를 내다가 바로 이어서 [이]를 발음한다.

[으] + [이] = [의]

의미
의사
의자
회의
편의점

(1) [의]가 자음 뒤에 올 때는
[이]로 발음한다.
흰색[**흰**색] 무늬[무**니**]

(2) [의]가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회의[**회**이] 여의도[여**이**도]

(3)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친구의[친구**에**] 고향

잠깐!

된소리와 거센소리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가요
- 2) 까요

설명 'ㄱ'은 'ㄱ'보다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ㄱ]과 [ㄲ]의 발음

[ㄱ]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뒷부분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ㄲ]은 [ㄱ]보다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소리 낸다.

감 - 꿈
개 - 깨
굴 - 꿀
가지 - 까지
고리 - 꼬리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그림
- 2) 크림

설명 'ㄷ'은 'ㄱ'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ㄱ]과 [ㅋ]의 발음

[ㄱ]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뒷부분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ㅋ]은 [ㄱ]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껍 - 컵
공 - 쿵
가요 - 커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끼요
- 2) 커요

설명 'ㄱ'은 'ㄱ'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ㄱ]과 [ㅋ]의 발음

[ㄱ]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뒷부분을 붙이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열면서 소리 낸다.

[ㅋ]은 [ㄱ]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꼭 - 콕
끼 - 키
깨요 - 캐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달
- 2) 딸

설명 'ㄷ'은 'ㄷ'보다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ㄷ]과 [ㅌ]의 발음

[ㄷ]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ㅌ]은 [ㄷ]보다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소리 낸다.

담 - 땀
당 - 땅
그대 - 그때
달라요 - 따라요
더워요 - 뜨거워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도끼
- 2) 툇끼

설명 'ㄷ'은 'ㄷ'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ㄷ]과 [ㄷ]의 발음

[ㄷ]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ㄷ]은 [ㄷ]보다 입안의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달 - 탈
 덕 - 텍
 동계 - 통계
 배달 - 배탈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락
- 2) 락

설명 'ㄷ'은 'ㄷ'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ㄷ]과 [ㄷ]의 발음

[ㄷ]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붙이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열면서 소리 낸다.

[ㄷ]은 [ㄷ]보다 입안의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딸 - 탈
 땀 - 툼
 뛰어요 - 튀어요
 통통해요 - 똥똥해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방
- 2) 뺑

설명 '뺑'은 'ㅂ' 보다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ㅂ]과 [뺑]의 발음

[ㅂ]은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뺑]은 [ㅂ]보다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벼 - 뻬
불 - 뺑
발레 - 뺑래
부리 - 뿌리
변해요 - 뻬해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발
- 2) 팔

설명 'ㅍ'은 'ㅂ'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ㅂ]과 [ㅍ]의 발음

[ㅂ]은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ㅍ]은 [ㅂ]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봄 - 폼
불 - 풀
비 - 피
비자 - 피자
병균 - 평균
변해요 - 편해요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뽕
- 2) 풀

설명 '포'은 '뽕'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ㅍ]과 [포]의 발음

[ㅍ]은 두 입술을 붙이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열면서 소리 낸다.

[포]은 [ㅍ]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빨리 - 파리
뽕뽕 - 펄펄
뽕간색 - 파랑색
뽕라요 - 팔아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살
- 2) 쌀

설명 '쌀'은 '살' 보다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ㅅ]과 [ㅆ]의 발음

[ㅅ]은 혀끝을 아랫니 뒤쪽에 두고 입을 벌려 공기를 천천히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ㅆ]은 [ㅅ]보다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삼 - 씌
사요 - 싸요
서요 - 써요
솔솔 - 쏘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자**요
- 2) **짜**요

설명 'ㅈ'은 'ㅊ' 보다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ㅈ]과 [ㅊ]의 발음

[ㅈ]은 혀와 입천장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ㅊ]은 [ㅈ]보다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더 주고 소리 낸다.

잠 - 찜
죽 - चु
짐 - 찜
자요 - 짜요
자장면 - 짜장면
짓어요 - 찢어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차**
- 2) **차**

설명 'ㅈ'은 'ㅊ'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ㅈ]과 [ㅊ]의 발음

[ㅈ]은 혀와 입천장을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ㅊ]은 [ㅈ]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빨리 소리 낸다.

잠 - 참
종 - 총
주워요 - 추워요
진해요 - 친해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짜요
- 2) 차요

설명 '차'는 '차' 보다 입안의 공기를 밖으로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ㅈ]과 [ㅊ]의 발음

[ㅈ]은 혀와 입천장을 붙이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았다가 열면서 소리 낸다.

[ㅊ]은 [ㅈ]보다 입안의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찍문 - 창문

찌요[찌요] - 처요[처요]

쭉쭉 - 축축

찢해요 - 친해요

비슷한 소리 구별하기(자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고니
- 2) 고리

설명 'ㄹ'은 'ㄴ' 보다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살짝 대고 소리 낸다.

[ㄹ]과 [ㄴ]의 발음

[ㄹ]은 혀끝을 살짝 들어 올려서 윗잇몸 뒤쪽을 짚게 치면서 소리 낸다.

[ㄴ]은 혀끝 부분을 윗잇몸 뒤쪽에 대었다가 떼면서 소리 낸다.

무늬 - 무리
비난 - 바람
비누 - 비료
카누 - 가루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모자
- 2) 보자

설명 'ㅂ'은 'ㅁ'과 달리 입술 사이로만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 낸다.

[ㅂ]과 [ㅁ]의 발음

[ㅁ]은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코와 입으로 동시에 내보내며 소리 낸다.

[ㅂ]은 입안의 공기를 입술 사이로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망 - 방
명 - 병
망치 - 방치
미워요 - 비워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살**아요
- 2) **달**아요

설명 'ㅅ'은 'ㄷ'과 달리 혀끝을 윗잇몸 뒤에 대지 않고 입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 낸다.

[ㅅ]과 [ㄷ]의 발음

[ㄷ]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 낸다.

[ㅅ]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 좁은 틈을 두고,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돌 - 술

두 번 - 세 번

다람쥐 - 사람

더워요 - 시원해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사**요
- 2) **자**요

설명 'ㅅ'은 'ㅈ'과 달리 혀를 입천장에 대지 않고 입 밖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 낸다.

[ㅅ]과 [ㅈ]의 발음

[ㅅ]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 좁은 틈을 두고,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ㅈ]은 혀와 입천장을 붙였다가 [ㅅ]소리를 낼 때처럼 좁게 열면서 소리 낸다.

서울 - 저울

세수 - 재주

소개 - 조개

사리 - 자리

송이 - 종이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훈**자
- 2) **손**자

설명 'ㅎ'은 'ㅅ'과 달리 입의 안쪽에서부터 입 밖으로 공기를 세게 내보내며 소리 낸다.

[ㅎ]과 [ㅅ]의 발음

[ㅅ]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 좁은 틈을 두고,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ㅎ]은 입의 안쪽에서부터 공기를 세게 내보내며 소리 낸다.

힘 - 삼
화장 - 사장
공항 - 공사
화요일 - 수요일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목**
- 2) **못**[문]

설명 받침 자리에서 [ㄷ]은 [ㄱ]과 달리,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대고 소리 낸다.

받침 [ㄱ]과 [ㄷ]의 발음

받침 자리에서 [ㄱ] 소리를 낼 때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뒷부분을 붙여 공기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다.

받침 자리에서 [ㄷ]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붙여 공기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다.

[ㄱ] 국, 닭[닥], 밖[박], 북, 약, 책, 바닥, 부엌[부억], 책상, 한국
[ㄷ] 것[겉], 꽃[곶], 끝[곶], 맛[만], 빗[븐], 옷[운], 잣[잔], 낮[난]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산
- 2) 상

설명 받침 자리에서 'ㄴ'은 'ㅇ'과 달리,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대고 소리 낸다.

받침 [ㄴ]과 [ㅇ]의 발음

받침 자리에서 [ㄴ]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붙이고 공기를 코를 통해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받침 자리에서 [ㅇ] 소리를 낼 때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뒷부분을 붙이고 공기를 코를 통해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ㄴ] 문, 안, 잔, 내년, 사진, 온도, 우산

[ㅇ] 공, 방, 형, 고향, 동생, 사랑, 여행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살
- 2) 상

설명 받침 자리에서 'ㄴ'은 'ㄹ'보다 혀를 좀 더 넓게 펴고 윗잇몸 뒤쪽에 대고 소리 낸다.

받침 [ㄹ]과 [ㄴ]의 발음

받침 자리에서 [ㄴ]은 혀를 넓게 펴고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붙인 채로 공기를 코를 통해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받침 자리에서 [ㄹ]은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붙인 채로 공기를 혀의 양 옆으로 내보내면서 소리 낸다.

[ㄴ] 눈, 돈, 손, 문자, 동전, 모란, 부산

[ㄹ] 달, 물, 발, 절, 서울, 가을, 겨울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받
- 2) 반

설명 받침 자리에서 'ㅁ'은 'ㄴ'과 달리 입술을 붙이고 소리 낸다.

받침 [ㅁ]과 [ㄴ]의 발음

받침 자리에서 [ㅁ] 소리를 낼 때는 두 입술을 붙이고 공기를 코를 통해 내보낸다.

받침 자리에서 [ㄴ]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붙인 채로 공기를 코를 통해 내보면서 소리 낸다.

[ㅁ] 꿈, 붓, 잠, 힘, 마음, 서점

[ㄴ] 문, 안, 잔, 내년, 사진, 온도, 우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시름
- 2) 씨름

설명 '씨'는 '시'보다 목과 혀를 긴장시켜 강하게 발음한다.

[시]와 [씨]의 발음

[시] 시간, 시골, 시장, 시집, 도시, 잠시

[씨] 씨름, 씨앗, 글씨, 날씨, 숨씨, 아가씨

같은 소리가 나란히 올 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아내
- 2) 아내

설명 '아내'와 '안내'의 발음 동작은 똑같지만 '안내'를 발음할 때는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시간이 '아내'보다 길다.

[ㄴ]-[ㄴ] 발음

[ㄴ]이 연이어 발음될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오래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한다.

[안] + [내]

안내 - 아내
연내 - 연애[여내]
인내 - 이내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다리
- 2) 달리

설명 '다리'와 '달리'의 발음 동작은 같지만 '달리'를 발음할 때는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시간이 '다리'보다 길다.

[ㄹ] - [ㄹ] 발음

[ㄹ]이 연이어 발음될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오래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한다.

[물] + [리]

물리 - 무리
달리 - 다리
길러요 - 길어요[기러요]
잘라요 - 자라요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어머니

2) 엄마

설명

'엄마'와 '어머니'의 발음 동작은 같지만 '엄마'를 발음할 때는 입술이 붙어 있는 시간이 '어머니'보다 길다.

[ㅁ] - [ㅃ] 발음

[ㅁ]이 연이어 발음될 때는 입술을 오래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한다.

[엄] + [마]

엄마 - 어머니

남매 - 자매

임무 - 이모

섬마을 - 바다마을

받침 소리 내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밖에[바**게**]
- 2) 밖[바**크**]

설명 'ㄱ'은 뒤에 모음이 오면 [ㄱ] 소리로 발음되지만, 받침 자리에서는 [ㄲ] 소리로 바뀐다.

받침 자리에서 [ㄱ]으로 바뀌는 소리들

받침 'ㄱ, ㄲ, ㅋ'은 모두 [ㄱ]으로 발음된다.



ㄱ: 책[책], 한국[한국], 수박[수박]

ㄲ: 밖[밖], 깎습니다[깎습니다]

ㅋ: 부엌[부엌], 새벽녘[새벽녘]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꽃이[꼬**치**]
- 2) 꽃[꼬**ㄷ**]
- 3) 꽃가게[꼬**까**게]

설명 'ㄷ'은 뒤에 모음이 오면 [ㄷ] 소리로 발음되지만, 받침 자리에서는 [ㄸ] 소리로 바뀐다.

받침 자리에서 [ㄷ]으로 바뀌는 소리들

받침 'ㄷ, ㅌ, ㅍ, ㅊ, ㅌ, ㅎ'은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ㄷ: 곧[곧], 답습니다[답습니다]

ㅌ: 발[발], 끝까지[끝까지]

ㅍ: 옷[옷], 웃습니다[웃습니다]

ㅊ: 있습니다[인습니다], 잡았습니다[자받습니다]

ㅌ: 늦습니다[늘습니다], 찾습니다[참습니다]

ㅎ: 빛[빛], 꽃다발[꽃따발]

ㅎ: 히읏[히읏], 낑습니다[낑습니다]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앞이[아**ㅍ**]

2) 앞 [**ㅍ**]

3) 앞집[**ㅍ**집]

설명 'ㅍ'은 뒤에 모음이 오면 [ㅍ] 소리로 발음되지만, 받침 자리에서는 [ㅂ] 소리로 바뀐다.

받침 자리에서 [ㅂ]으로 바뀌는 소리들

받침 'ㅂ, ㅍ'은 모두 [ㅂ]으로 발음된다.



ㅂ: 밥[밥], 십[십], 아홉[아홉], 입습니다[입쌔니다]

ㅍ: 앞[앞], 옆[옆], 뒅습니다[뒅쌔니다]

겹받침 소리 내기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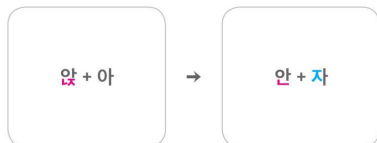
- 1) 의자에 앉습니다[안씀니다].
- 2) 의자에 앉습니다[알씀니다].

설명 겹받침 'ㅅ'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ㄴ] 소리만 난다.

정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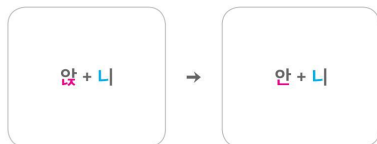
겹받침 'ㅅ'의 발음

- 1) 겹받침 'ㅅ'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ㄴ]과 [ㅈ]이 모두 소리 난다.



의자에 앉아요[안자요]
손을 얹어요[언저요]

- 2) 겹받침 'ㅅ'은 뒤에 자음이 오면 [ㄴ] 소리만 난다.



의자에 앉니[안니]?
의자에 앉고[안꼬] 싶어요.
의자에 앉지[안찌] 마세요.

용어 해설

겹받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 예를 들어, '값'의 받침 'ㅅ', '늑다'의 'ㄷ', '없다'의 'ㅃ' 등이 '겹받침'이다.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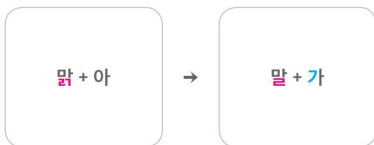
- 1) 물이 맑지[말찌] 않아요.
- 2) 물이 맑지[막찌] 않아요.

설명 겹받침 'ㄹ'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ㄱ] 소리만 난다.

정답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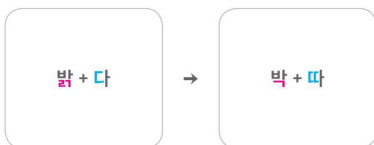
겹받침 'ㄹ'의 발음

- 1) 겹받침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ㄱ]이 모두 소리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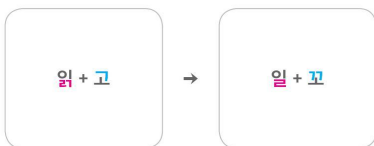
물이 맑아요[말가요].
물이 맑으니까[말그니까] 마실 수 있어요.

- 2) 겹받침 'ㄹ'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ㄱ] 소리만 난다.



달이 밝다가[박따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밝습니다[박쌔습니다].
달이 밝지요[박찌요]?
물이 맑지[막찌] 않아요.
물이 맑습니다[막쌔습니다].

- ④ 단, 동사의 경우 겹받침 'ㄹ'은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ㄱ] 소리만 난다.



책을 읽고[일꼬] 음악을 들어요.
내일은 책을 읽겠어요[일게써요].

잠깐!

명사의 겹받침 'ㄹ'은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더라도 [ㄱ] 소리가 난다.

담장[닥짱]

담과[닥과] 달걀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에요.

① [여덜] 살이에요.

② [여덹] 살이에요.

설명

겹받침 'ㄹ'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 소리만 난다.

정답. 1

겹받침 'ㄹ'의 발음

1) 겹받침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ㅂ]이 모두 소리 난다.

넙 + 어



넙 + ㅂ

방이 넓어요[넙벼요].

땅을 밟아요[넙바요].

넛과 넛을 더하면 여덹이에요[여덹비예요].

2) 겹받침 'ㄹ'은 뒤에 자음이 오면 [ㄹ] 소리만 난다.

넙 + 고



넙 + ㄱ

바다가 넓고[넙꼬] 깊어요.

운동장이 넓습니다[넙씀니다].

안개가 열게[넙께] 끼었어요.

잠깐!

동사 '넓다, 넓죽하다, 넓적하다'의 겹받침은 뒤에 자음이 오면
[넙따, 넙꾸카다, 넙쩌카다]와 같이 소리 난다.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음식 값이[가비] 얼마예요?
- 2) 음식 값이[갑씨] 얼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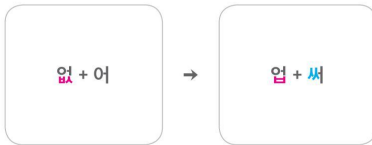
설명

겹받침 'ㅃ'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ㅂ]과 [ㅅ]이 모두 소리 난다.

정답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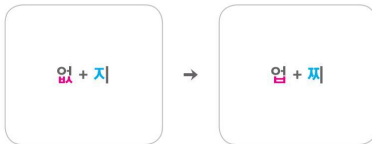
겹받침 'ㅃ'의 발음

- 1) 겹받침 'ㅃ'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ㅂ]과 [ㅅ]이 모두 소리 난다.



커피가 없어요[업써요].
커피가 없으면[업쓰면] 물 주세요.
커피가 없어도[업써도] 괜찮아요.

- 2) 겹받침 'ㅃ'은 뒤에 자음이 오면 [ㅂ] 소리만 난다.



커피가 없지[업찌]?
커피가 없고[업꼬] 물이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업씀니다].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젊는데[젊든데] 뭐가 걱정이예요.
- 2) 젊는데[저른데] 뭐가 걱정이예요.

설명 겹받침 'ㄷ'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ㄹ]이 모두 소리 난다.

정답_ 1

겹받침 'ㄷ'의 발음

- 1) 겹받침 'ㄷ'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ㄹ]이 모두 소리 난다.



빨래를 삶아요[살마요].
빨래를 삶으면[살므면] 깨끗해요.

- 2) 겹받침 'ㄷ'은 뒤에 자음이 오면 [ㄹ]만 소리 난다.



국수를 삶습니다[삼습니다].
국수를 삶고[삼꼬] 찬물에 넣어요.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아이스크림을 활아[활타] 먹어요.
- 2) 아이스크림을 활아[하라]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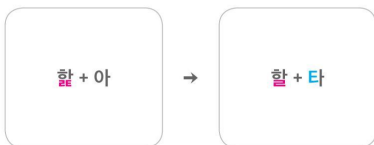
설명

겹받침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ㄷ]이 모두 소리 난다.

정답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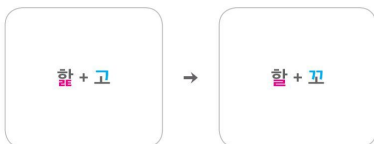
겹받침 'ㄹ'의 발음

- 1) 겹받침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ㄹ]과 [ㄷ]이 모두 소리 난다.



강아지가 혀로 활아요[활타요].
강아지가 혀로 활으니[활트니] 간지러워요.

- 2) 겹받침 'ㄹ'은 뒤에 자음이 오면 [ㄹ] 소리만 난다.



개가 그릇을 활습니다[활쌔니다].
개가 그릇을 활고[활꼬] 있어요.

다른 소리가 만날 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입술[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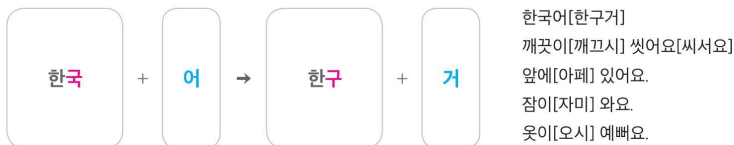
2) 입안[이반]

설명

‘입술’처럼 받침 ‘ㅂ’ 뒤에 자음 ‘ㅅ’이 오면 ‘ㅂ’이 받침 자리에서 소리 난다. 그런데 ‘입안’과 같이 받침 ‘ㅂ’ 뒤에 모음 ‘이’가 오면 ‘ㅂ’은 다음 말의 첫소리로 소리 난다.

받침과 모음이 이어질 때

붙여 쓰는 말 중, 앞말의 받침은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❶ 단, ‘ㅎ’ 받침은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소리 나지 않고 없어진다.

좋아요[조아요] (o)

좋아요[조하요] (x)

잠깐!

단어와 단어가 만날 경우에는 앞말의 끝소리(받침)가 바로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되지 않고, 우선 ‘받침 소리 내기’(28쪽, 29쪽 참조)에 따라 [ㄷ]이나 [ㅂ]으로 바뀐 다음에 이 소리가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맛-없어요 → [맛] + [엄써요] → [마덥써요] (o), [마섭써요] (x)

걸-웃 → [걸] + [온] → [거툐] (o), [거툐] (x)

옆-어른 → [엿] + [어른] → [여버른] (o), [여퍼른]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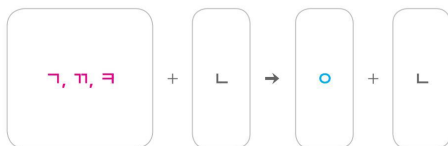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한국[한국]
- 2) 한국 노래[한국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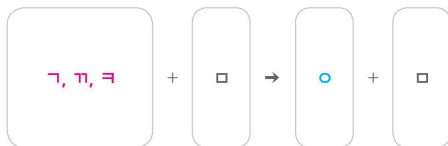
설명 '한국'처럼 'ㄱ'으로 끝나는 말은 '노래'와 같이 'ㄴ'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ㄱ]이 [ㅇ] 소리로 바뀌어서 난다.

받침 'ㄱ, ㄴ, ㅋ'과 'ㄴ, ㄹ'이 만날 때

받침 'ㄱ, ㄴ, ㅋ'은 콧소리 'ㄴ'이나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저녁 노을[저녁노을]
한국 남자[한국남자]
한국 노래[한국노래]
쉬는[성는]



부엌문[부엌문]
한국말[한국말]
저녁 메뉴[저녁메뉴]
한국 미술[한국미술]
감기약 먹어요[감기양머겨요]?
창밖만[창방만] 봐요.

잠깐!

먼저 '받침 소리 내기(28쪽 참조)'에 따라 받침 자리에서 'ㄴ, ㅋ'은 [ㄱ]으로 바뀐 다음에, 'ㄴ'이나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가게 문을 닫고[닫꼬] 집에 가요.
- 2) 여섯 시는 가게 문을 닫는[닫는] 시간이에요.

설명

'닫-'처럼 'ㄷ'으로 끝나는 말은 '느'와 같이 'ㄴ'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ㄷ]이 [ㄴ] 소리로 바뀌어서 난다.

받침 'ㄷ, ㅅ, ㅈ, ㅊ, ㅌ'과 'ㄴ, ㄹ'이 만날 때

받침 'ㄷ, ㅅ, ㅈ, ㅊ, ㅌ'은 콧소리 'ㄴ'이나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ㄷ, ㅅ, ㅈ, ㅊ, ㅌ	+	ㄴ	→	ㄴ	+	ㄴ	꽃나무[꼰나무] 옛날[옴날] 문을 닫니[단니]? 몇 나라[면나라]
---------------	---	---	---	---	---	---	---

ㄷ, ㅅ, ㅈ, ㅊ, ㅌ	+	ㄹ	→	ㄴ	+	ㄹ	몇 명[면명] 꽃마을[꼰마을]
---------------	---	---	---	---	---	---	---------------------

잠깐!

먼저 '받침 소리 내기(28쪽 참조)'에 따라 받침 자리에서
 'ㅅ, ㅈ, ㅊ, ㅌ'은 [ㄷ]으로 바뀐 다음에 'ㄴ'이나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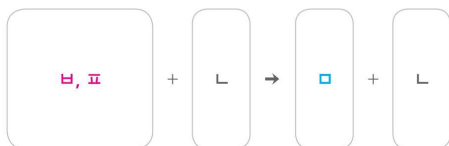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월금날[월금날]이 언제예요?

설명 '월금'처럼 'ㅂ'으로 끝나는 말은 '날'과 같이 'ㄴ'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ㅂ]이 [ㅁ] 소리로 바뀌어서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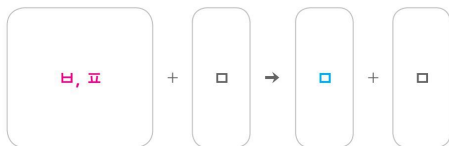
받침 'ㅂ, ㅍ'과 'ㄴ, ㅁ'이 만날 때

받침 'ㅂ, ㅍ'은 콧소리 'ㄴ'이나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왔니[암니]

반갑네요[반감네요]



십만원[심마원]

일곱 명[일곱명]

왔문[암문]

잠깐!

먼저 '받침 소리 내기(29쪽 참조)'에 따라 받침 자리에서 'ㅍ'은 [ㅂ]으로 바뀐 다음에 'ㄴ'이나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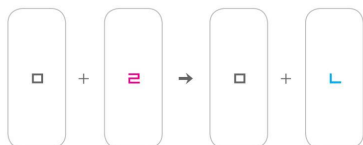
버스 정류장[정류장]이 가까워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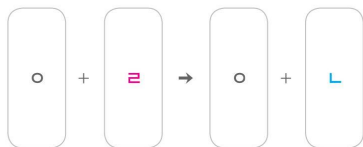
'류'처럼 'ㄹ'로 시작하는 말은 '정'과 같이 'ㅇ'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ㄹ]이 [ㄴ] 소리로 바뀌어서 난다.

받침 'ㄹ, ㅇ'과 'ㄹ'이 만날 때

'ㄹ'은 콧소리 'ㄹ'이나 'ㅇ' 받침 뒤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음력[음녁]
음료수[음료수]



정리[정니]
종류[종류]
정류장[정류장]
사용료[사용료]

잠깐!

몇몇 단어에서는 'ㄹ'이 받침 'ㄴ' 뒤에서 [ㄴ]으로 소리나기도 한다.

의견란[의견난]

정신력[정신녁]

상견례[상견네]

신라면[신나면]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신랑[신낭]이 잘 도와줘요.
- 2) 신랑[실랑]이 잘 도와줘요.

설명 받침 'ㄴ'이 'ㄹ'과 나란히 오면 [ㄹ]로 소리 난다.

정답_2

'ㄴ'과 'ㄹ'이 나란히 올 때

'ㄴ'은 'ㄹ'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 난다.



달님[달림]
설날[설랄]
일 년[일련]
물냉면[물랭면]



신랑[실랑]
난로[날로]
근로자[글로자]

I. 발음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굳어요[구터요]
- 2) 굳이[구지]

설명 받침 'ㄷ'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원래 소리로 발음되지만 접사 '이'가 오면 [ㄷ]이 [ㄷ] 소리로 바뀐다.

받침 'ㄷ'과 '이'가 만날 때

받침 'ㄷ'은 뒤에 '이'로 시작하는 접사가 오면 [ㅈ] 소리로 바뀐다.



해돋이[해도지]
 여달이[여다지]
 굳이[구지] 왜 왔어요?

잠깐!

받침 'ㄷ'은 뒤에 '히, 허'가 오면 [ㅈ] 소리로 바뀐다.
 닫힌[다친] 창문
 문이 닫혀요[다쳐요].

용어 해설

접사: 다른 말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말. '선생님, 명명이, 높이, 사랑하다, 맨발' 등에서 '님, 이, 하다, 맨'과 같은 말을 '접사'라고 한다.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끝을[끄~~틀~~] 보아요.

2) 끝이[끄~~치~~] 보여요.

설명 받침 'ㄷ'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원래 소리로 발음되지만 조사 '이'가 오면 [ㄷ]이 [ㄷ̚] 소리로 바뀐다.

받침 'ㄷ'과 '이'가 만날 때

받침 'ㄷ'은 뒤에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가 오면 [ㄷ̚] 소리로 바뀐다.



발이[바치] 넓어요.

발이랑[바치랑] 논이 있어요.

햇벌이[햐뻬치] 좋아요.

같이[가치] 먹어요.

응어 해설

조사: 다른 말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에서 '이, 에서, 를' 등이 조사이다.

I. 발음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요즘 어떻게[어떡게] 지냈어요?
- 2) 요즘 어떻게[어떠게] 지냈어요?

설명 'ㅎ'과 'ㄱ, ㄷ, ㅂ'이 나란히 오면 [ㅋ, ㅌ, ㅍ] 소리로 바뀐다.

정답_2

'ㅎ'과 'ㄱ, ㄷ, ㅂ'이 나란히 올 때

'ㅎ'과 'ㄱ, ㄷ, ㅂ'이 나란히 오면 [ㅋ, ㅌ, ㅍ] 소리로 바뀐다.



넣고[너코]
많지요[만치요]
파랑다[파라타]



만형[마형]
밥하고[바파고]
한국하고[한구카고]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아이와 손을 잡고[잡꼬] 가요.
- 2) 아이와 손을 잡고[잡꼬] 가요.

설명 '잡-'처럼 'ㅂ'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고'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ㄱ]이 [ㄲ]소리로 바뀌어서 난다.

정답. 1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받침 'ㄱ, ㄲ,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ㅅ, ㅆ, ㅈ'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면 [ㄲ, ㄸ, ㅃ, ㅆ] 소리로 바뀐다.



ㄱ: 학교[학교], 숙제[숙제], 벽돌[벽돌]

ㄲ: 박조차[박쪼차], 깎지[깎찌]

ㅋ: 부억도[부억또]

ㄷ: 민고[민꼬]

ㅌ: 말다[말따]

ㅍ: 덩지[덩찌], 탑승[탑쌩]

ㅍ: 앞집[압집], 덩고[뎡꼬]

ㅈ: 낮잠[날쌩]

ㅊ: 빛도[빈또]

ㅅ: 첫사랑[철싸랑], 옷가지[올까지]

ㅆ: 있습니다[원쌩니다]

잠깐!

'받침소리 내기(28쪽, 29쪽 참조)'에 따라 받침 자리에서 'ㄲ, ㅋ'은 [ㄱ]으로,

'ㄷ, ㅌ, ㅍ, ㅈ, ㅊ'는 [ㄷ]으로, 'ㅂ,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그런 후에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면 [ㄲ, ㄸ, ㅃ, ㅆ] 소리로 바뀐다.

용어 해설

된소리: 'ㄲ, ㄸ, ㅃ, ㅆ'를 '된소리'라고 한다.

올바른 발음을 찾아보세요.

- 1) 신발을 신고[신고] 옷을 입어요.
- 2) 신발을 신고[신포] 옷을 입어요.

설명 동사에서 '신-'처럼 'ㄴ'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어미 '고'가 오면 [ㄱ]이 [ㅍ]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

정답_2

동사의 끝소리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올 때

동사의 끝소리 'ㄴ, ㄹ'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ㄱ, ㄷ, ㅅ, ㅈ] 소리로 바뀐다.



ㄴ: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지[안찌], 안습니다[안쌔니다]

ㄹ: 감다[감따], 감고[감꼬], 감지[감찌], 감습니다[감쌔니다]

용어 해설

어미: 한국어의 동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 쓰인다. 동사 '먹다'는 문장에서 '먹고, 먹으니까, 먹어서, 먹어요, 먹습니다' 등으로 바뀌는데 이때 '먹-'에 연결되는 '-고, -으니까, -어서, -어요, -습니다' 등을 '어미'라고 한다.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결혼한 사람[결혼한 **사람**]
- 2) 결혼할 사람[결혼할 **사람**]

설명 'ㅅ'은 그 앞에 꾸미는 말 '-(으)ㄹ'이 오면 [ㅅ]으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

<동사 + '-을/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어미 '-을/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면 [ㄱ, ㄷ, ㅂ, ㅅ, ㅈ] 소리로 바뀐다.



갈 데가[갈때가] 있어요.

운전할 수[운전할쑤] 있어요?

이사할 집[이사할집]

커피 드실 분[드실분]

먹을 것[머글것]

‘물고기’와 ‘불고기’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물고기[물꼬기]
- 2) 불고기[불꼬기]

설명 ‘물’과 ‘고기’가 만나 ‘물에서 사는 고기’라는 뜻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고기’는 ‘물’ 뒤에서 [꼬]로 발음하지만, ‘불’ 뒤에서는 [고]로 발음한다.

‘보름달’의 발음

두 단어가 만나 새로운 단어가 될 때,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 ㄴ, ㄹ, ㄴ’이더라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로 바뀔 때가 있다.



달 : 보름달[달], 초승달[달] / 반달[달]
 돈 : 용돈[돈], 거스름돈[돈] / 잔돈[돈]
 동안 : 일 년 동안[동안], 한 달 동안[동안] / 먹는 동안[동안]
 소리 : 물소리[쏘] / 잔소리[쏘]
 밥 : 비빔밥[뽽], 아침밥[뽽], 김밥[뽽] / 볶음밥[밥], 김밥[밥]
 방 : 안방[뽽] / 노래방[방], 찜질방[방]
 법 : 요리법[뽽], 사용법[뽽] / 방법[법]
 병 : 소주병[뽽], 맥주병[뽽] / 유리병[병]
 증 : 신분증[쥬], 학생증[쥬] / 영수증[증]
 집 : 빵집[쥬] / 초가집[집]

‘수원역’과 ‘오이도역’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수원역[수원^ㄴ역]
- 2) 오이도역[오이도^ㄴ역]

설명 ‘수원역’은 ‘수원’이 ‘ㄴ’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역’이 ‘ㄷ’ 모음으로 시작하여 [ㄴ]소리가 더해진다.
따라서 [수워^ㄴ역]으로 발음하지 않고 [수원^ㄴ역]로 발음한다.

‘웬일’의 발음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되거나 이어서 발음할 때, 앞말의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시작하면 [ㄴ] 소리가 더해진다.



웬일[웬닐]
 감잎[감닙]
 두통약[두통낙]
 색연필[색년필-생년필]
 생선요리[생선뇨리]
 주말여행[주말녀행-주말려행]
 문을 못 열어요[문 녀려요-문 녀려요].

‘갯잎’과 ‘깨소금’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 1) 갯잎 [갯닙]
- 2) 깨소금 [깨소금]

설명 ‘갯잎’은 ‘갯’과 ‘잎’이 합쳐진 말이다. 이때 ‘갯’이 ‘ㅅ’받침으로 끝나고 ‘잎’이 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ㄴ’이 더해져서 [갯닙 - 갯닙]과 같이 발음된다.

‘뒷일’의 발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이시옷 ‘ㅅ’이 들어가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 소리가 더해져 [ㄴㄴ] 소리로 바뀐다.



뒷일[된닐]
 옛일[엔닐]
 나랏일[나란닐]
 나뭇잎 [나문닙]

‘피어서’와 ‘퍼서’

다음 발음을 연습해 보세요.

1) 꽃이 **피어서** 예뻐요.

2) 꽃이 **퍼서** 예뻐요.

설명 ‘피어서’의 ‘피어’는 ‘퍼’로 발음할 수 있다.

‘보아’와 ‘봐’의 발음

두 모음이 이어서 있을 때 줄여서 발음할 수 있다.



거울을 보아요 - 거울을 봐요

물을 마시어요 - 물을 마셔요.

방에 두어요 - 방에 뒀요.

선물을 주어요 - 선물을 줬요

전화가 안 되어요 - 전화가 안 댔요.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


II. 형태

- 53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이'
- 54 '저'와 '제'
- 56 헛갈리는 조사 형태들
- 62 헛갈리는 어미 형태들
- 69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규칙)
- 76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불규칙)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이’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지민 씨,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

 ① 라면이를 먹었어요.

② 라면을 먹었어요.

설명 ‘라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므로 ‘라면이를’과 같이 쓸 수 없고 ‘라면을’과 같이 써야 한다.

정답_2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접사 ‘이’

‘지민’처럼 끝에 받침이 있는 사람 이름 뒤에는 ‘-이’를 붙인다.

지민이가 집에 있어요.(o) / 민지가 집에 있어요.(o)

가방이가 집에 있어요.(x) / 가방이 집에 있어요.(o)

친구가 지민이를 좋아해요.(o) / 친구가 민지를 좋아해요.(o)

친구가 비빔밥이를 좋아해요.(x) / 친구가 비빔밥을 좋아해요. (o)

지민이는 예뻐요.(o) / 민지는 예뻐요.(o)

꽃이는 예뻐요. (x) / 꽃이 예뻐요.(o)

혜수가 빵을 먹어요. 지민이도 먹어요.(o) / 혜수가 빵을 먹어요. 민지도 먹어요.(o)

집에서 청소를 해요. 음식이도 만들어요.(x) / 집에서 청소를 해요. 음식도 만들어요.(o)

‘저’와 ‘제’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가 그쪽으로 갈게요.
- 2)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설명 ‘저’는 뒤에 조사 ‘가’가 오면 ‘저가’와 같이 쓸 수 없고 ‘제가’로 써야 한다.

정답_ 2

‘저’와 ‘제’

‘저’는 뒤에 조사 ‘가’가 오면 ‘제’로 바뀐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o) / 저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x)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o)

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o)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o)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o) / 저가 음식을 만들었어요.(x)

저는 음식을 만들었어요.(o)

저만 음식을 만들었어요.(o)

저도 음식을 만들었어요.(o)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줄게요.

저는 요리 솜씨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요리를 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내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
- 2) 나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

설명 '나'는 뒤에 조사 '가'가 오면 '나'와 같이 쓸 수 없고 '내가'로 써야 한다.

정답_ 1

'나'와 '내'

'나'는 뒤에 조사 '가'가 오면 '내'로 바뀐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o) / 나가 그 일을 할 수 있어.(x)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o)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어.(o)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o)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o) / 나가 음식을 만들었어.(x)

나는 음식을 만들었어.(o)

나만 음식을 만들었어.(o)

나도 음식을 만들었어.(o)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줄게.

나는 요리 솜씨가 없어.

하지만 내가 직접 요리를 해.

헛갈리는 조사 형태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사람가 많아요.
- 2) 사람이 많아요.

설명 '사람'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가'를 쓸 수 없고 '이'를 써야 한다.

정답_ 2

조사 '가'와 '이'

- 1) 조사 '가'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쓴다.

날씨 + **가**

날씨**가** 좋아요.
어디**가** 아파요?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 2) 조사 '이'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쓴다.

꽃 + **이**

꽃**이** 예뻐요.
비빔밥**이** 맛있어요.
정류장**이** 어디예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물을 마셔요.
- 2) 물를 마셔요.

설명 '물'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를'을 쓸 수 없고 '을'을 써야 한다.

정답_ 1

조사 '를'과 '을'

1) 조사 '를'은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쓴다.

영화 + **를**

영화**를** 봐요.
노래**를** 불러요.
친구**를** 만나요.
커피**를** 마셔요.

2) 조사 '을'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쓴다.

옷 + **을**

옷**을** 사요.
물**을** 마셔요.
음악**을** 들어요.
선생님**을** 만나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중국**와** 한국
- 2) 중국**과** 한국

설명 '중국'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와'를 쓸 수 없고 '과'를 써야 한다.

정답. 2

조사 '와'와 '과'

1) 조사 '와'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쓴다.

의자 + **와**

의자**와** 책상이 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어요.

2) 조사 '과'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쓴다.

책상 + 과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타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먹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남편랑 같이 가요.
- 2) 남편이랑 같이 가요.

설명 '남편'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랑'을 쓸 수 없고 '이랑'을 써야 한다.

정답_ 2

조사 '랑'과 '이랑'

1) 조사 '랑'은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쓴다.

친구 + 랑

친구랑 만나요.
엄마랑 같이 가요.
딸기랑 수박을 사요.

2) 조사 '이랑'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쓴다.

동생 + 이랑

동생이랑 만나요.
남편이랑 같이 가요.
수박이랑 딸기를 사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추석은 언제예요?
- 2) 추석는 언제예요?

설명 '추석'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은'을 쓸 수 없고 '는'을 써야 한다.

정답_ 1

조사 '는'과 '은'

- 1) 조사 '는'은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붙는다.

노래 + 는

한국 노래는 어때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 2) 조사 '은'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는다.

음식 + 은

한국 음식은 어때요?
제 고향은 베트남이에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① 고향에 어떻게 가요?
- ② 비행기로 가요.
- ③ 비행기으로 가요.

설명 '비행기'와 같이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으로'는 쓸 수 없고 '로'를 써야 한다.

정답_ 1

조사 '로'와 '으로'

1) 조사 '로'는 받침이 없는 말이나 '르'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는다.

학교 + **로**

학교**로** 가요.
지하철**로** 가요.
밀가루**로** 만들어요.

2) 조사 '으로'는 '르' 이외의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는다.

집 + **으로**

집**으로** 와요.
공장**으로** 가요.
계란**으로** 만들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베트남 사람**예요**.
- 2)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설명 '사람'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예요'는 쓸 수 없고 '이에요'를 써야 한다.

정답_ 2

'예요'와 '이에요'

1) '예요'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붙는다.

친구 + **예요**

그 사람은 친구**예요**.
제 고향은 인도**예요**.

2) '이에요'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는다.

선생님 + **이에요**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제 고향은 일본**이에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친구**아**! 반가워.

2) 친구**아**! 반가워.

설명

'친구'와 같이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아'는 쓸 수 없고 '야'를 써야 한다.

정답_2

조사 '야'와 '아'

1) 조사 '야'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붙는다.

민수 + **야**

민수**야**! 오랜만이야.

강아지**야**! 이리 와.

2) 조사 '아'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붙는다.

민경 + **아**

민경**아**! 어디 가?

멍멍**아**! 이리 와.

햇갈리는 어미 형태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손잡이를 잡어 보세요.
- 2) 손잡이를 잡아 보세요.

설명 '잡-'과 같이 모음이 'ㅈ'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를 쓸 수 없고, '-아'를 써야 한다.

정답_ 2

어미 '-아'와 '-어'

- 1) '-아'는 모음이 'ㅈ, ㅊ'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안 + 아 → 안아

아기를 안아 줬어요.
손잡이를 잡아 보세요.

- ❶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해'로 바뀐다.

운동해 보세요. (o)

운동하 보세요. (x)

- 2) '-어'는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접 + 어 → 접어

종이를 접어 보세요.
이름을 적어 보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바빠도 아침을 먹어야 해요.
- 2) 바빠도 아침을 먹어야 해요.

설명 '바-'와 같이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도'를 쓸 수 없고, '-아도'를 써야 한다.

정답_2

어미 '-아도'와 '-어도'

- 1) '-아도'는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잡 + **아도** → 잡아도

손을 잡아도 돼요?
비싸도 사고 싶어요.
집에 와도 아무도 없어요.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아요.

- ❖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해도'로 바뀐다.

피곤해도 일을 끝내요.(o)
피곤하도 일을 끝내요.(x)

- 2) '-어도'는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키 + **어도** → 커도

불을 커도 어두워요.
선생님이어도 공부해야 해요.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의자가 좁어서 불편해요.
- 2) 의자가 좁아서 불편해요.

설명 '좁-'과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서'를 쓸 수 없고, '-아서'를 써야 한다.

정답. 2

어미 '-아서'와 '-어서'

- 1) '-아서'는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좋 + **아서** →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일이 끝나서 집에 가요.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요.

- ❶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해서'로 바뀐다.

청소해서 깨끗해요. (o)

청소하서 깨끗해요. (x)

- 2) '-어서'는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길 + **어서** → 길어서

머리가 길어서 잘라야 해요.
돈을 벌어서 아이한테 줘요.
옷이 예뻐서 사고 싶어요.
주말이어서 사람이 많아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여기 앞아야 해요.
- 2) 여기 앞어서 해요.

설명 '앞-'과 같이 모음이 'ㅏ'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야'를 쓸 수 없고, '-아야'를 써야 한다.

정답. 1

어미 '-아야'와 '-어야'

1) '-아야'는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갈 + **아야** → 갈아야

9시까지 가야 해요.

드라마를 봐야 해요.

양말 두 짝이 갈아야 해요.

❖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해야'로 바뀐다.

일요일도 출근해야 해요. (o)

일요일도 출근하야 해요. (x)

2) '-어야'는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읽 + **어야** → 읽어야

책을 읽어야 해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주말에 쉬는 회사이~~어~~야(회사~~어~~야) 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엄마한테 용돈을 받어요.

2)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야.

설명

'받-'과 같이 모음이 'ㅏ'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요'를 쓸 수 없고, '-아요'를 써야 한다.

정답. 2

어미 '-아요'와 '-어요'

1) '아요'는 모음이 'ㅏ, ㅑ'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살 + **아요** → 살아요

안산에 살아요.

파리를 잡아요.

영화를 봐요.

II. 형태

- ㉠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해요'로 바뀐다.

한국어를 공부해요. (o)

한국어를 공부하요. (x)

- 2) '-어요'는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읽 + **어요** → 읽어요

책을 읽어요.

한국어를 배워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점심에 피자를 먹었어요.

2) 점심에 피자를 먹았어요.

설명

'먹-'과 같이 모음이 'ㅏ'로 끝나는 말 뒤에는 '-았-'을 쓸 수 없고, '-었-'을 써야 한다.

정답. 1

어미 '-았-'과 '-었-'

- 1) '-았-'은 모음이 'ㅏ, ㅓ'로 끝나는 말 뒤에 붙는다.

잡 + **았** + 어요 →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추워서 창문을 닫았어요.

- ㉠ 단, '하다'가 들어간 말은 '-했-'으로 바뀐다.

작년에 결혼했어요. (o)

작년에 결혼하어요. (x)

2) '-었-'은 그 밖의 모음 뒤에 붙는다.

씻 + **었** + 어요 → 씻었어요

더러워서 씻었어요.
집에 김치가 있었어요.
더워서 창문을 열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점심을 먹고 있어요.
- 2)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설명 '먹-'과 같이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먹으고'라고 쓸 수 없고, '먹고'라고 해야 한다.

정답_ 2

'먹고'와 '먹으면'

1)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어미 '-고, -는, -는데, -지'가 올 때는 '으'를 넣지 않고 그대로 쓴다.

잡 + **고** → **잡고**

	-고	-는	-는데	-지
잡다	잡고	잡는	잡는데	잡지
달다	달고	달는	달는데	달지
입다	입고	입는	입는데	입지
먹다	먹고	먹는	먹는데	먹지
웃다	웃고	웃는	웃는데	웃지
작다	작고	*	*	작지
좁다	좁고			좁지

손을 잡고 있어요.

키가 작지 않아요.

지금 먹는 음식이 뭐예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쪼요.

II. 형태

잠깐!

'작다, 좁다'와 같은 형용사 뒤에는 어미 '-는, -는데'가 붙을 수 없다.

2)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어미 '-니까, -는데, -러, -면, -세요'가 오면 어미 앞에 '으'를 넣는다.

잡 + 으 + 니까 → 잡으니까

	-으니까	-는데	-으러	-으면	-으세요
잡다	잡으니까	*	잡으러	잡으면	잡으세요
달다	달으니까		달으러	달으면	달으세요
입다	입으니까		입으러	입으면	입으세요
먹다	먹으니까		먹으러	먹으면	먹으세요
웃다	웃으니까	작은데	웃으러	웃으면	웃으세요
작다	작으니까		*	작으면	*
좁다	좁으니까	좁은데		좁으면	

손을 잡으면 돼요.(o)

손을 잡면 돼요.(x)

문을 달으니까 조용해요.(o)

문을 달니까 조용해요.(x)

웃이 작으면 바꾸세요.(o)

웃이 작면 바꾸세요.(x)

웃을 입으니까 따뜻해요.(o)

웃을 입니까 따뜻해요.(x)

잠깐!

(1) '잡다, 달다, 입다, 먹다, 웃다'와 같은 동사 뒤에는 어미 '-는데'가 붙을 수 없다.

(2) '작다, 좁다'와 같은 형용사 뒤에는 어미 '-으러, -으세요'가 붙을 수 없다.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규칙)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친구랑 노니까 재미있어요.
- 2) 친구랑 놀으니까 재미있어요.

설명 '놀-'과 같이 ㄹ 받침이 있는 말은 그 뒤에 '-니까'가 오면 'ㄹ'이 없어진다.

정답. 1

'놀고'와 '노니까'

- 1)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어미 '-러, -면'이 오더라도 '으'를 넣지 않는다.

놀 + 으러 → 놀러

	-러	-면
날다	날러	날면
놀다	놀러	놀면
만들다	만들러	만들면
살다	살러	살면
열다	열러	열면
알다	알러	알면
팔다	팔러	팔면
(맛이) 달다	•	달면
멀다		멀면
힘들다		힘들면

저는 한국에 살러 왔어요.(o)

저는 한국에 살으러 왔어요.(x)

일이 힘들면 좀 쉬세요.(o)

일이 힘들으면 좀 쉬세요.(x)

II. 형태

2)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어미 '-ㄴ데, -는데, -니까, -세요' 앞에서 'ㄹ'이 없어진다.

살 + 으니까 → 사니까

	-ㄴ데	-는데	-니까	-세요
날다	*	나는데	나니까	나세요
놀다		노는데	노니까	노세요
만들다		만드는데	만드니까	만드세요
살다		사는데	사니까	사세요
알다		아는데	아니까	아세요
울다		우는데	우니까	우세요
팔다		파는데	파니까	파세요
(맛이) 달다	단데	*	다니까	*
멀다	먼데		머니까	
힘들다	힘든데		힘드니까	

많이 파세요!(o)

많이 팔으세요!(x)

일이 힘든데 좀 쉬까요?(o)

일이 힘드는데 좀 쉬까요?(x)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오세요.(o)

9시에 문을 열으니까 그때 오세요.(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를 배워는 곳이에요.
- 2)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설명 '배우-'와 같이 'ㄱ'로 끝나는 말 뒤에 '느'이 오면 '배워는'을 쓸 수 없고, '배우는'으로 써야 한다.

정답_ 2

'ㄴ, ㄷ'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1) 'ㄴ, ㄷ'로 끝나는 말 뒤에 '-니까, -러, -면, -세요' 등이 오면 'ㄴ, ㄷ'를 그대로 둔다.

보 + **니까** → 보**니까**

	-니까	-러	-면	-세요
보다	보니까	보러	보면	보세요
오다	오니까	오러	오면	오세요
나오다	나오니까	나오러	나오면	나오세요
두다	두니까	두러	두면	두세요
주다	주니까	주러	주면	주세요
멈추다	멈추니까	멈추러	멈추면	멈추세요
바꾸다	바꾸니까	바꾸러	바꾸면	바꾸세요
배우다	배우니까	배우러	배우면	배우세요
싸우다	싸우니까	싸우러	싸우면	싸우세요
재우다	재우니까	재우러	재우면	재우세요
둘러주다	둘러주니까	둘러주러	둘러주면	둘러주세요

한국에 오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한국어를 배우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요.

2) 'ㄴ, ㄷ'로 끝나는 말 뒤에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등이 오면 '-와/워도, -와/워서, -와/워요, -왔/왔어요'로 바뀐다.

보 + **아요** → **봐요** 주 + **어요** → **줘요**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보다	봐도	봐서	봐요	봤어요
오다	와도	와서	와요	왔어요
나오다	나와도	나와서	나와요	나왔어요
두다	둬도	둬서	둬요	뒀어요
주다	줘도	줘서	줘요	줬어요

II. 형태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멈추다	멈춰도	멈춰서	멈춰요	멈췄어요
바꾸다	바꿔도	바꿔서	바꿔요	바꿨어요
배우다	배워도	배워서	배워요	배웠어요
싸우다	싸워도	싸워서	싸워요	싸웠어요
재우다	재워도	재워서	재워요	재웠어요
돌려주다	돌려줘도	돌려줘서	돌려줘요	돌려줬어요

옷을 바꿨어요. (o)

옷을 바꾸았어요. (x)

친구에서 선물을 찾어요. (o)

친구에게 선물을 주았어요. (x)

아이가 유치원에서 왔어요. (o)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았어요. (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공장에 다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 2) 공장에 다니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설명 '다니-'와 같이 'ㅣ'로 끝나는 말 뒤에 '-면'이 오면 '다녀면'을 쓸 수 없고, '다니면'으로 써야 한다.

정답_ 2

'ㅣ'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1) 'ㅣ'로 끝나는 말 뒤에 어미 '-니까, -러, -면, -세요'가 오면 'ㅣ'를 그대로 둔다.

마시 + **면** → 마시**면**

	-니까	-러	-면	-세요
가지다	가지니까	가지러	가지면	가지세요
그리다	그리니까	그리러	그리면	그리세요
마시다	마시니까	마시러	마시면	마시세요

	-니까	-려	-면	-세요
던지다	던지니까	던지려	던지면	던지세요
아끼다	아끼니까	아끼려	아끼면	아끼세요
가르치다	가르치니까	가르치려	가르치면	가르치세요
시다	시니까	•	시면	•
느리다	느리니까		느리면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어를 잘해요.

- 2) 'ㅣ'로 끝나는 말 뒤에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등이 오면 '-어도, -어서, -어요, -었어요'로 바뀐다.

마시 + 어요 → 마셔요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가지다	가쳐도	가쳐서	가쳐요	가졌어요
그리다	그려도	그려서	그려요	그렸어요
마시다	마셔도	마쳐서	마셔요	마셨어요
던지다	던쳐도	던쳐서	던쳐요	던졌어요
아끼다	아껴도	아껴서	아껴요	아꼈어요
가르치다	가르쳐도	가르쳐서	가르쳐요	가르쳤어요
시다	셔도	셔서	셔요	셨어요
느리다	느려도	느려서	느려요	느렸어요
아니다	아녀도	아녀서	아녀요	아냈어요

시원한 물을 마셔요.(o)

시원한 물을 마시어요.(x)

돈을 아껴서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o)

돈을 아끼어서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x)

☞ 단, '아니다'의 경우 '아니어요, 아녀요, 아니예요, 아네요'를 모두 쓸 수 있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배가 아프고 열이 나요.
- 2) 배가 아파고 열이 나요.

설명 '아프-'와 같이 'ㅡ'로 끝나는 말 뒤에 '-고'가 오면 '아파고'를 쓸 수 없고, '아프고'로 해야 한다.

정답. 1

'ㅡ'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 1) 'ㅡ'로 끝나는 말 뒤에 어미 '-고, -면, -지, -습니다' 등이 오면 'ㅡ'를 그대로 둔다.

쓰 + **고** → **쓰고**

	-고	-면	-지	-습니다
끄다	끄고	끄면	끄지	큼니다
쓰다	쓰고	쓰면	쓰지	씁니다
크다	크고	크면	크지	큼니다
기쁘다	기쁘고	기쁘면	기쁘지	기쁩니다
고프다	고프고	고프면	고프지	고쁩니다
바쁘다	바쁘고	바쁘면	바쁘지	바쁩니다
슬프다	슬프고	슬프면	슬프지	슬쁩니다
아프다	아프고	아프면	아프지	아쁩니다
예쁘다	예쁘고	예쁘면	예쁘지	예쁩니다

딸이 예쁘고 귀여워요.

남편의 키가 큼니다.

일이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 2) 'ㅡ'로 끝나는 말 뒤에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등이 오면 'ㅡ'가 없어진다.

쓰 + **아도** → **써도** **바쁘** + **아도** → **바빠도**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끄다	꺼도	꺼서	꺼요	졌어요
쓰다	써도	써서	써요	썼어요

	-아/어도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크다	커도	커서	커요	켰어요
기쁘다	기뻐도	기뻐서	기뻐요	기뻐했어요
고프다	고파도	고파서	고파요	고팠어요
바쁘다	바빠도	바빠서	바빠요	바빴어요
슬프다	슬퍼도	슬퍼서	슬퍼요	슬펐어요
아프다	아파도	아파서	아파요	아팠어요
예쁘다	예뻐도	예뻐서	예뻐요	예뻐했어요

신청서에 이름을 썼어요.(o)

신청서에 이름을 쓰았어요.(x)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요.(o)

배가 고프서 식당에 가요.(x)

드라마가 너무 슬퍼도 울지 않아요.(o)

드라마가 너무 슬프도 울지 않아요.(x)

모양이 변하는 동사들(불규칙)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음악을 듣고 있어요.
- 2) 음악을 들으면 재미있어요.

설명 '듣다'의 '듣-'과 같이 'ㄷ' 받침이 있는 말 뒤에 '-고'가 오면 '듣고'와 같이 발음하지만, '-으면'이 오면 'ㄷ'이 'ㄹ'로 바뀐다.

정답. 2

'듣고'와 '들어요'

1) 'ㄷ'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어미 '-고, -는, -는데, -는지, -습니다'가 연결되면 'ㄷ'을 그대로 둔다.

듣 + **고** → 듣고

	-고	-는	-는데	-는지	-습니다
닫다	닫고	닫는	닫는데	닫는지	닫습니다
받다	받고	받는	받는데	받는지	받습니다
걷다	걷고	걷는	걷는데	걷는지	걷습니다
듣다	듣고	듣는	듣는데	듣는지	듣습니다
묻다	묻고	묻는	묻는데	묻는지	묻습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어요.

공원을 걷는 시간이에요.

공원을 걷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2) 'ㄷ' 받침으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으니까, -으려, -으면, -아/어요, -으세요' 등이 오면 'ㄷ'이 'ㄹ'로 바뀌는 말이 있다.

닫 + **아**요 → 닫아요

	-으니까	-으려	-으면	-아/어요	-으세요
닫다	닫으니까	닫으려	닫으면	닫아요	닫으세요

	-으니까	-으러	-으면	-아/어요	-으세요
받다	받으니까	받으러	받으면	받아요	받으세요

< 'ㄷ'이 'ㄹ'로 바뀌는 동사들 >

듣 + 어요 → 들 + 어요 → 들어요

	-으니까	-으러	-으면	-아/어요	-으세요
걷다	걸으니까	걸으러	걸으면	걸어요	걸으세요
듣다	들으니까	들으러	들으면	들어요	들으세요
묻다	물으니까	물으러	물으면	물어요	물으세요

회사에 걸어서 가요.(o)

회사에 걸어서 가요.(x)

모르는 길을 물어요.(o)

모르는 길을 물어요.(x)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해요.(o)

라디오를 들으며서 일해요.(x)

잠깐!

불규칙 동사: 한국어의 동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 쓰인다. 동사 '먹다'는 문장에서 '먹고, 먹으니까, 먹어서, 먹어요, 먹습니다' 등으로 바뀌는데 이때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연결되는 '-고, -으니까, -어서, -어요, -습니다' 등을 '어미'라고 한다. 이때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바뀌어 쓰이는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한다.

II. 형태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 2)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설명 '하-' 뒤에 어미 '-고'를 연결하면 '하고'를 쓸 수 없고, '하고'를 써야 한다.

정답. 2

'하고'와 '해요'

- 1) '하다'의 '하-' 뒤에 어미 '-고, -니까, -면, -습니다'가 오면 '하'를 그대로 둔다.

공부하 + **고** → 공부하고

	-고	-니까	-면	-습니다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면	공부합니다
빨래하다	빨래하고	빨래하니까	빨래하면	빨래합니다
생각하다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합니다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운동하다	운동하고	운동하니까	운동하면	운동합니다
요리하다	요리하고	요리하니까	요리하면	요리합니다
청소하다	청소하고	청소하니까	청소하면	청소합니다
건강하다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착하다	착하고	착하니까	착하면	착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해요.

청소하면 깨끗해요.

요리하는 중이에요.

- 2) '하다'의 '하-' 뒤에 어미 '-어도, -어서, -어요, -었어요' 등이 연결되면 '하'가 '해'로 바뀐다.

요리하 + **어서** → 요리**해서**

	-어도	-어서	-어요	-었어요
공부하다	공부해도	공부해서	공부해요	공부했어요
빨래하다	빨래해도	빨래해서	빨래해요	빨래했어요

	-어도	-어서	-어요	-었어요
생각하다	생각해도	생각해서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사랑하다	사랑해도	사랑해서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운동하다	운동해도	운동해서	운동해요	운동했어요
요리하다	요리해도	요리해서	요리해요	요리했어요
청소하다	청소해도	청소해서	청소해요	청소했어요
건강하다	건강해도	건강해서	건강해요	건강했어요
착하다	착해도	착해서	착해요	착했어요

집에서 빨래해요.(o)

집에서 빨래하요.(x)


청소해서 집이 깨끗해요.(o)


청소하서 집이 깨끗해요.(x)

손님이 와서 요리했어요.(o)

손님이 와서 요리하어요.(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① 겨울이니까 그렇지.

② 겨울이니까 그래지.

설명 '그렇-'과 같이 ㅎ 받침이 있는 말은 그 뒤에 '-지'가 오면 '그래지'라고 쓸 수 없고, '그렇지'라고 해야 한다.

정답. 1

‘빨강’과 ‘빨개요’

1) ‘ㅎ’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 ‘-고, -지, -습니다’가 오면 ‘ㅎ’을 그대로 둔다.

빨강 + **고** → 빨강고

	-고	-지	-습니다
날다	날고	날지	날습니다
놓다	놓고	놓지	놓습니다

II. 형태

	-고	-지	-습니다
좋다	좋고	좋지	좋습니다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맣습니다
노랗다	노랗고	노랗지	노랗습니다
빨갳다	빨갳고	빨갳지	빨갳습니다
파랗다	파랗고	파랗지	파랗습니다
하얗다	하얗고	하얗지	하얗습니다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을 파랗고 구름은 하얗습니다.

2) 'ㅎ' 받침으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으니까, -으면'이 오면 'ㅎ'이 없어지는 말이 있다.

날 + **으니까** → 날**으니까**

	-으니까	-으면
날다	날으니까	날으면
놓다	놓으니까	놓으면
좋다	좋으니까	좋으면

< 'ㅎ'이 없어지는 동사들 >

까**맣**ㅎ니까 → 까**마** + **으니까** → 까**마**니까

	-니까	-면
까맣다	까마니까	까마면
노랗다	노라니까	노라면
빨갳다	빨가니까	빨가면
파랗다	파라니까	파라면
하얗다	하야니까	하야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다	이러니까	이러면

- 3) ‘ㅎ’ 받침으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ㅏ/ㅑ’가 ‘ㅐ’로 바뀌는 말이 있다.

낱 + **아요** → 낱**아요**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낱다	낱아서	낱아요	낱았어요
놓다	놓아서	놓아요	놓았어요
좋다	좋아서	좋아요	좋았어요

< ‘ㅎ’이 없어지고 ‘ㅏ/ㅑ’가 ‘ㅐ’로 바뀌는 동사들 >

빨강 + 어서 → 빨**가** + 어서 → 빨**개**서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까맣다	까매서	까매요	까맸어요
노랗다	노래서	노래요	노랬어요
빨갳다	빨개서	빨개요	빨갸어요
파랗다	파래서	파래요	파랬어요
하얗다	하매서	하매요	하맸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이렇다	이래서	이래요	이랬어요

구름이 하**매**서 예뻐요.(o)

구름이 하**얹**서 예뻐요.(x)

가을에는 나뭇잎이 빨**갈**고 노**래**요.(o)

가을에는 나뭇잎이 빨**갈**고 노**랴**어요.(x)

II. 형태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빨래가 말르면 건조해요.
- 2) 빨래가 마르면 건조해요.

설명 '마르-'와 같이 동사의 어간이 '르'로 끝나는 말은 그 뒤에 '-면'이 오면 '말르면'이라고 쓸 수 없고, '마르면'이라고 해야 한다.

정답. 2

‘빠르고’와 ‘빨라요’

- 1) '르'로 끝나는 말은 뒤에 '-고, -면, -지, -습니다'가 오면 '르'를 그대로 둔다.

빠르 + **고** → **빠르고**

	-고	-면	-지	-습니다
따르다	따르고	따르면	따르지	따릅니다
들르다	들르고	들르면	들르지	들릅니다
(물이) 마르다	마르고	마르면	마르지	마릅니다
기르다	기르고	기르면	기르지	기릅니다
모르다	모르고	모르면	모르지	모릅니다
자르다	자르고	자르면	자르지	자릅니다
다르다	다르고	다르면	다르지	다릅니다
(배가) 부르다	부르고	부르면	부르지	부릅니다
빠르다	빠르고	빠르면	빠르지	빠릅니다

종이를 가위로 자릅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공부하세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고 편해요.

- 2) '르'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어미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가 오면 '르'가 'ㄹ'로 바뀌는 말이 있다.

따르 + **아요** → **따라요**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따르다	따라서	따라요	따랐어요
들르다	들러서	들러요	들렀어요

<‘르’가 ‘ㄹ’로 바뀌는 동사들>

다르+아요 → 다ㄹ+아요 → 달라요

부르+어요 → 부ㄹ+어요 → 불러요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목이) 마르다	말라서	말라요	말랐어요
기르다	길러서	길러요	길렀어요
모르다	몰라서	몰라요	몰랐어요
자르다	잘라서	잘라요	잘랐어요
다르다	달라서	달라요	달랐어요
(배가) 부르다	불라서	불러요	불렀어요
빠르다	빨라서	빨라요	빨랐어요

저는 영어를 몰라요.(o)

저는 영어를 모로아요.(x)

배가 불러서 조금만 먹었어요.(o)

배가 부로서 조금만 먹었어요.(x)

출근 시간이 빨라서 일찍 일어나요.(o)

출근 시간이 빠로서 일찍 일어나요.(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물 좀 주세요.

2) 날씨가 덥니까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설명

‘덥-’과 같이 ‘ㅂ’ 받침으로 끝나는 있는 말은 그 뒤에 ‘-니까’가 오면 ‘덥으니까’라고 쓸 수 없고, ‘더우니까’라고 해야 한다.

정답_1

‘답고’와 ‘더워서’

1) ‘ㅂ’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고, -지, -습니다’가 오면 ‘ㅂ’ 받침을 그대로 둔다.

답 + **고** → 답고

	-고	-지	-습니다
입다	입고	입지	입습니다
잡다	잡고	잡지	잡습니다
좁다	좁고	좁지	좁습니다
덥다	덥고	덥지	덥습니다
돕다	돕고	돕지	돕습니다
맵다	맵고	맵지	맵습니다
무겁다	무겁고	무겁지	무겁습니다
쉽다	쉽고	쉽지	쉽습니다
어렵다	어렵고	어렵지	어렵습니다
춥다	춥고	춥지	춥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일이 쉽고 재미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2) ‘ㅂ’ 받침으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가 오면 ‘ㅂ’ 받침이 ‘오’나 ‘우’로 바뀌는 말이 있다.

입 + **어요** → 입어요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입다	입으니까	입으면	입어서	입어요	입었어요
잡다	잡으니까	잡으면	잡아서	잡아요	잡았어요
잡다	좁으니까	좁으면	좁아서	좁아요	좁았어요

<'ㅂ' 받침이 '오'나 '우'로 바뀌는 동사들>

쉽 + 어요 → 쉬우 + 어요 → 쉬워요

돕 + 아요 → 도우 + 아요 → 도와요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덥다	더우니까	더우면	더워서	더워요	더웠어요
돕다	도우니까	도우면	도워서	도와요	도왔어요
맵다	매우니까	매우면	매워서	매워요	매웠어요
무겁다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무거워서	무거워요	무거웠어요
쉽다	쉬우니까	쉬우면	쉬워서	쉬워요	쉬웠어요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어려워서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춥다	추우니까	추우면	추워서	추워요	추웠어요

한국어가 어려워요.(o)

한국어가 어렵어요.(x)

음식이 맵어서 못 먹겠어요.(o)

음식이 매워서 못 먹겠어요.(x)

가방이 무거우니까 들어 주세요.(o)

가방이 무겁으니까 들어 주세요.(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감기가 나면 만나요.

2) 감기가 나으면 만나요.

설명

'낫-'과 같이 'ㅂ'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그 뒤에 '-면'이 오면 '나면'이라고 쓸 수 없고, '나으면'이라고 해야 한다.

정답_2

‘낫고’와 ‘나아요’

1) ‘ㅅ’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고, -지, -습니다’가 오면 ‘ㅅ’ 받침을 그대로 둔다.

낫 + **고** → 낫고

	-고	-지	-습니다
웃다	웃고	웃지	웃습니다
씻다	씻고	씻지	씻습니다
긋다	긋고	긋지	긋습니다
낫다	낫고	낫지	낫습니다
붓다	붓고	붓지	붓습니다
젓다	젓고	젓지	젓습니다
짓다	짓고	짓지	짓습니다
잇다	잇고	잇지	잇습니다

씻지 않으면 더러워요.

커피에 우유를 붓고 드세요.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2) ‘ㅅ’ 받침으로 끝나는 말 중에는 그 뒤에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가 오면 ‘ㅅ’ 받침이 없어지는 말이 있다.

웃 + **어서** → 웃어서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웃다	웃으니까	웃으면	웃어서	웃어요	웃었어요
씻다	씻으니까	씻으면	씻어서	씻어요	씻었어요

<'ㅅ' 받침이 없어지는 동사들>

날ㅅ아요 → 나 + 아요 → 나아요

부ㅅ어요 → 부 + 어요 → 부어요

	-으니까	-으면	-아/어서	-아/어요	-았/었어요
긋다	그으니까	그으면	그어서	그어요	그었어요
낫다	나으니까	나으면	나아서	나아요	나았어요
붓다	부으니까	부으면	부어서	부어요	부었어요
젓다	저으니까	저으면	저어서	저어요	저었어요
짓다	지으니까	지으면	지어서	지어요	지었어요
잇다	이으니까	이으면	이어서	이어요	이었어요

소금을 넣고 저어요.(o)

소금을 넣고 젓어요.(x)

커피에 우유를 부어서 먹어요.(o)

커피에 우유를 붓어서 먹어요.(x)

많이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어요.(o)

많이 먹고 자서 얼굴이 붓었어요.(x)

찾아보기

모음

[아] 발음	5
[애] 발음	5, 8
[어] 발음	6
[에] 발음	5, 8
[오] 발음	6, 7
[우] 발음	7
[으] 발음	6, 7
[이] 발음	5, 7, 8
[야] 발음	9
[얘] 발음	9
[여] 발음	10
[예] 발음	9
[와] 발음	10
[왜] 발음	11
[외] 발음	11
[요] 발음	11
[위] 발음	12
[웨] 발음	11
[위] 발음	12
[유] 발음	13
[의] 발음	13

자음

[ㄱ] 발음	14
[ㄴ] 발음	14, 15
[ㄷ] 발음	21
[ㄸ] 발음	15, 16, 22
[ㄹ] 발음	15, 16
[ㄺ] 발음	21
[ㄻ] 발음	21
[ㄼ] 발음	17, 21
[ㄽ] 발음	17, 18
[ㅅ] 발음	18, 22, 23
[ㅆ] 발음	18
[ㅈ] 발음	19, 22
[ㅊ] 발음	19, 20
[ㅋ] 발음	19, 20
[ㅋ] 발음	14, 15
[ㅌ] 발음	16
[ㅍ] 발음	17, 18
[ㅎ] 발음	23

받침 [ㄱ]의 발음	23
받침 [ㄴ]의 발음	24, 25
받침 [ㄷ]의 발음	23
받침 [ㄹ]의 발음	24
받침 [ㅁ]의 발음	25
받침 [ㅇ]의 발음	24
[시] 발음	25
[씨] 발음	25
[ㄴ]과 [ㄴ]이 연이어 발음 될 때	26
[ㄹ]과 [ㄹ]이 연이어 발음 될 때	26
[ㅁ]과 [ㅁ]이 연이어 발음 될 때	27

음운현상

겹받침 'ㄷ'의 발음	30
겹받침 'ㄹ'의 발음	31
겹받침 'ㅁ'의 발음	34
겹받침 'ㄹ'의 발음	32
겹받침 'ㅈ'의 발음	35
겹받침 'ㅊ'의 발음	33
ㄴ첨가	48, 49, 50
<동사+-.을/ㄹ> 뒤에 'ㄱ'이 올 때	45, 46, 47, 48
<동사+-.을/ㄹ> 뒤에 'ㄷ'이 올 때	45, 46, 47, 48
<동사+-.을/ㄹ> 뒤에 'ㅂ'이 올 때	45, 46, 47, 48
<동사+-.을/ㄹ> 뒤에 'ㅅ'이 올 때	45, 46, 47, 48
<동사+-.을/ㄹ> 뒤에 'ㅈ'이 올 때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ㄴ' 뒤에 'ㄱ'이 올 때	30,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ㄴ' 뒤에 'ㄷ'이 올 때	30,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ㄴ' 뒤에 'ㅅ'이 올 때	30,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ㄴ' 뒤에 'ㅈ'이 올 때	30,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ㄹ' 뒤에 'ㄱ'이 올 때	34,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ㄹ' 뒤에 'ㄷ'이 올 때	34,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ㄹ' 뒤에 'ㅅ'이 올 때	34, 45, 46, 47, 48
동사의 끝소리 'ㄹ' 뒤에 'ㅈ'이 올 때	34, 45, 46, 47, 48
모음 축약	51
받침 자리에서 'ㅅ'의 발음	28, 38, 45
받침 자리에서 'ㅈ'의 발음	28, 38, 45
받침 자리에서 'ㅊ'의 발음	28, 37, 45
받침 자리에서 'ㅊ'의 발음	28, 45
받침 자리에서 'ㅈ'의 발음	28, 38, 45
받침 자리에서 'ㅈ'의 발음	28, 38, 45
받침 자리에서 'ㅈ'의 발음	28, 37, 45
받침 자리에서 'ㅈ'의 발음	29, 39, 45

찾아보기

받침 자리에서 'ㅎ'의 발음	28, 44
받침 'ㄱ'과 'ㄴ'이 만날 때	37
받침 'ㄱ'과 'ㄹ'이 만날 때	37
받침 'ㄱ'과 'ㅎ'이 만날 때	44
받침 'ㄲ'과 'ㄴ'이 만날 때	28, 37
받침 'ㄲ'과 'ㄹ'이 만날 때	28, 37
받침 'ㄴ'과 'ㄹ'이 만날 때	41
받침 'ㄷ' 뒤에 'ㄷ'이 올 때	45
받침 'ㄷ'과 'ㄴ'이 만날 때	38
받침 'ㄷ'과 'ㄹ'이 만날 때	38
받침 'ㄷ'과 'ㅎ'이 만날 때	44
받침 'ㄹ'과 'ㄴ'이 만날 때	41
받침 'ㄹ'과 'ㄹ'이 만날 때	40
받침 'ㅂ'과 'ㄴ'이 만날 때	39
받침 'ㅂ'과 'ㄹ'이 만날 때	39
받침 'ㅂ'과 'ㅎ'이 만날 때	44
받침 'ㅅ'과 'ㄴ'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ㅅ'과 'ㄹ'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ㅇ'과 'ㄹ'이 만날 때	40
받침 'ㅈ'과 'ㄴ'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ㅈ'과 'ㄹ'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ㅈ'과 'ㄴ'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ㅈ'과 'ㄹ'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ㅊ'과 'ㄴ'이 만날 때	28, 37
받침 'ㅊ'과 'ㄹ'이 만날 때	28, 37
받침 'ㅌ'과 'ㄴ'이 만날 때	28, 38
받침 'ㅌ'과 'ㄹ'이 만날 때	28, 38
받침 '표'과 'ㄴ'이 만날 때	29, 39
받침 '표'과 'ㄹ'이 만날 때	29, 39
받침 'ㅎ'과 'ㄱ'이 만날 때	44, 28
받침 'ㅎ'과 'ㄷ'이 만날 때	44, 28
받침 'ㅎ'과 'ㄷ'이 만날 때	44, 28
받침 'ㄱ' 뒤에 'ㄱ'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ㄱ' 뒤에 'ㄷ'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ㄱ' 뒤에 'ㅂ'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ㄱ' 뒤에 'ㅅ'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ㄱ' 뒤에 'ㅈ'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ㄷ' 뒤에 'ㄱ'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ㄷ' 뒤에 'ㄷ'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ㄷ' 뒤에 'ㅂ'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ㄷ' 뒤에 'ㅅ'이 올 때	28, 45, 46, 47, 48
받침 'ㅂ' 뒤에 'ㄱ'이 올 때	29, 45, 46, 47, 48

받침 'ㅂ' 뒤에 'ㄷ'이 올 때	29, 45, 46, 47, 48
받침 'ㅂ' 뒤에 'ㅂ'이 올 때	29, 45, 46, 47, 48
받침 'ㅂ' 뒤에 'ㅅ'이 올 때	29, 45, 46, 47, 48
받침 'ㅂ' 뒤에 'ㅈ'이 올 때	29, 45, 46, 47, 48
연음	36
합성어에서의 경음화	45, 46, 47, 48, 49, 50
받침 'ㄷ'과 '이'가 만날 때	42
받침 'ㅌ'과 '이'가 만날 때	43

이형태

가/이	56
나/내	55
는/은	59
랑/이랑	58
로/으로	60
를/을	57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이'	53
-아/-어	62
-아도/-어도	63
-아서/-어서	64
-아야/-어야	65
-아요/-어요	65
-았/-었-	66
야/아	61
예요/이에요	61
저/제	54

용언활용

ㄷ 불규칙	76
'ㄹ'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69
ㄴ 불규칙	82
ㅂ 불규칙	84
ㅅ 불규칙	86
'ㅇ' 삽입	67
ㅎ 불규칙	79
'하다'가 붙은 동사의 변화	78
'ㄴ, ㄷ'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71
'ㄷ'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74
'ㅣ'로 끝나는 동사의 변화	72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처 | 경기도 문화정책과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전 화 | 031-400-4513

홈페이지 | <http://hkli.hanyang.ac.kr>

집 필 | 임유종 연구원(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A004401@hanyang.ac.kr)

백경미 연구원(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bgm@hanyang.ac.kr)

감 수 | 이필영 교수(한양대학교)

김태경 교수(한양대학교)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

한국어 발음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국제문화관 7-309-1호
TEL. 031-400-4513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

한국어 문법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머리말

최근 들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이미 1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내국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2010년 설립 이래, 경기도 지역의 국어사용 실태를 연구하고 지역 주민과 관공서·기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표준 어법을 교육하는 등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하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한국어 교사 연수회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사업 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앞장 서 왔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문화원이 그동안 쌓아 온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의 구체적 언어 사용 실태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습자는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문법과 발음을 익히고, 틀리기 쉬운 항목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연구와 개발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술 항목과 내용에 대해 일일이 검토하고 세심한 의견을 주신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와 이필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이 보다 좋은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오컴의 김영태 대표님과 편집부 여러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김태경

일러두기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은 오류 빈도가 높은 문법 형태와 어휘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조사를 다루었고, 2부에서는 접사와 어미, 3부에서는 어휘, 보조 용언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한 어휘와 문장 구성의 내용을 다루었다. 각 항목의 구성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 각 항목의 서두에서는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내용을 문제 형식으로 제공하여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마다 해설을 제공하여 정답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본문에서는 해당 항목의 용법과 예문을 적절히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예문은 실제로 사용된 외국인들의 언어 자료에서 발췌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특별히 유의하거나 참고해야 할 사항은 본문 아래에 덧붙여 제시하였다.
-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용어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을 서술할 때에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I. 조사	4
주어에 붙는 조사	5
목적어에 붙는 조사	7
꾸미는 말에 붙는 조사	8
명사에 붙어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9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	10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17
여러 개의 말을 이어주는 조사	21
조사들의 결합	25
조사의 생략	26
II. 접사와 어미	27
어떤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시킬 때 쓰는 접사	28
주어를 높이는 어미	30
지나간 일(과거)을 나타내는 어미	31
주어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미	32
문장을 끝맺는 어미	33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어미	36
순서를 나타내는 어미	40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어미	43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미	44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48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51
비교/비유를 나타내는 어미	55
부정사 앞에 쓰는 어미	56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57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어미	59
III. 어휘와 문장 구성	61
문장에 뜻을 더해 주는 표현	62
자주 쓰는 표현	70
헛갈리기 쉬운 표현	80
수에 관한 표현	88
문장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쓰기	90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

I. 조사

- 5 주어에 붙는 조사
- 7 목적어에 붙는 조사
- 8 꾸미는 말에 붙는 조사
- 9 명사에 붙어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 10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
- 17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 21 여러 개의 말을 이어주는 조사
- 25 조사들의 결합
- 26 조사의 생략

주어에 붙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베트남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 (2) 베트남에는 아름다운 강을 있어요.

문제
풀이

'가다'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가/이'를 써야 한다. '예쁘다, 좋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앞에도 '꽃이 예뻐요'처럼 '가/이'를 붙인다. '있다'도 '산이 있어요'처럼 '가/이'를 써야 한다. 이렇게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를 표현하는 말에는 '가/이'를 써야 한다.

정답_ 1

1. 주격 조사 '-가/이'

1)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표현할 때 쓴다.

- (1) 아이가 밥을 먹어요.
- (2) 사과가 비싸요.

2)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립다 등과 함께 쓰여) 기분(느낌)의 대상을 표현할 때 쓴다.

- (1) 나는 사과가 좋아요.
- (2) 너는 호랑이가 무섭니?

용어 해설

'학생-이'의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 대상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사 뒤에 붙는 말을 '주격 조사'라고 하고, 이 조사가 붙은 말을 '주어'라고 한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 보세요.

- (1) 부모님께서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 (2)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문제
풀이

주어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께서'를 붙여야 한다. 이 문장은 주어가 부모님이므로 '부모님께서'라고 하고, 서술어 '도착하다'에도 '시'를 결합시켜 '도착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정답_ 1

2. 주어를 높여 말할 때

1) 주어를 높여서 표현할 때 쓴다.

(“친구가/학생이 왔어요”에서 “친구가/학생이”의 “가/이”를 높이는 표현이다.)

(1) 할아버지께서 오시었어요.

(2) 우리 선생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3) 어머니께서는 교사이십니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오늘 친구와 둘이서 안산에 놀러 갔어요.

(2) 오늘 친구와 둘이씩 안산에 놀러 갔어요.

문제
풀이

‘혼자, 둘이, 셋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행위의 주체일 때에는 ‘서’를 쓴다. 이 문장은 친구와 나 두 사람이 놀러가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서’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3. 주격 조사 ‘서’

1) (“혼자, 둘이, 셋이, 넷이” 등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행위의 주체(주어)임을 강조한다.

(1) 오늘은 친구와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2) 혼자서 마트에 다녀왔어요.

▶ ‘둘이, 셋이, 넷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주어일 때, ‘서’가 결합하면 ‘무엇을 함께 한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이때는 형용사나 ‘이다’로 된 서술어는 쓰이기 어렵다.

(1) 영수와 철수, 둘이서 매우 친합니다.(×)

(2) 이 다섯이서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목적어에 붙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한국 물건이 팔아요.
- (2) 저는 한국 물건을 팔아요.

문제
풀이

‘팔다, 사다, 던지다, 먹다’ 같은 말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말 뒤에 ‘을/를’을 붙여서 ‘화장품을 팔다, 텔레비전을 사다, 상자를 던지다, 피자를 먹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2

1. 목적격 조사 ‘을/를’

- 1)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쓴다.
 - (1) 형이 동생에게 공을 던진다
 - (2) 저는 물을 마셨어요.
- 2)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결합하여, 이동의 의미를 지닌 말과 함께 쓰이면) 동작의 장소를 나타낸다.
 - (1) 우리 남편은 안산을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중이에요.
 - (2) 올라 씨는 매일 명동을 가요.

용어 해설

‘음식물’의 ‘을’과 같이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대상 등을 표현하기 위해 명사 뒤에 붙는 말을 ‘목적격조사’라고 하고, 목적격 조사가 붙은 말을 ‘목적어’라고 한다.

꾸미는 말에 붙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바트마 씨에 고향은 키르기스스탄이에요.
- (2) 바트마 씨의 고향은 키르기스스탄이에요.

문제
풀이

앞말의 소유나 소속, 소재 등을 표현할 때에는 '의'를 쓴다. 이 문장은 바트마 씨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뜻이므로 '의'를 쓰는 것이다.

정답. 2

1. 관형격 조사 '의'

- 1) (명사와 명사 사이에 붙어) 앞말과 뒷말 간에 소유, 소속, 소재, 주체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앞말이 뒷말을 수식한다)
 - (1)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소유]
 - (2)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해요. [소속]
 - (3)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소재]
 - (4) 찬티 씨의 노력으로 행사가 잘 끝났어요. [주체]

- ▶ 발음이 '에'와 동일함에 유의
- ▶ '나, 저, 너'에 '의'가 결합하면 줄여서 '내, 제, 네'로도 쓰인다.
(1) 나의 = 내 (2) 너의 = 네 (3) 저의 = 제

용어 해설

'서울의 역사, 안산의 식당' 등에 사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관형격 조사가 붙은 말을 '관형어'라고 하는데, '관형어'는 뒤의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명사에 붙어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여기가 안산시청이에요.
- (2) 여기가 안산시청 있어요.

문제 풀이

'A는 B이다'라는 문장에서 'A'를 설명할 때에는 설명하는 명사에 '이다'를 붙여야 한다. 이 문장에서 여기를 설명하는 명사가 '안산시청'이므로 그 다음에 '이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 서술격 조사 '이다'

1) (명사에 붙어) 문장의 주체(주어)를 설명할 때에는 '주체는 무엇이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준다)

- (1) 이 친구는 선생님입니다.
- (2)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 (3) 제 이름은 아택입니다.

용어 해설

'친구이다, 학생이다' 등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과 결합하여 '서술어'를 만들어 준다. 서술어는 문장 주체(주어)의 특성(부류나 속성 등)을 표현해 준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옷은 시장에 샀어요.
(2) 이 옷은 시장에서 샀어요.

문제
풀이

'에'는 주로 단순한 위치나 장소를 말할 때 쓰는데, '에서'는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장소를 표현한다. 따라서 옷을 사는 행동을 하는 장소를 표현하려면 '에서'를 써서 '시장에서 옷을 샀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1.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

<예>

- 1)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위치를 표현한다.
([사람이나 물건]이 [장소명사]에 있다'의 구성으로 많이 쓰임)
(1) ㄱ. 올라 씨는 지금 집에 있어요.
ㄴ. 사과는 냉장고 안에 있어요.
- 2) 이동의 도착 장소나 목적지를 표현한다.
([사람이나 행위의 주체]가 [장소명사]에 가다/오다/도착하다/참석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많이 쓰임)
(1) ㄱ. 홍위안 씨는 외국인주민센터에 갔어요.
ㄴ. 드디어 (우리 가족이) 안산에 도착했어요.
- 3) 물건을 움직여서 둘 장소나 위치를 표현한다.
([사람이나 행위의 주체]가 [물건 등]을 [장소명사]에 놓다/두다/버리다'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쓰임)
(1) ㄱ. 책을 책상 위에 놓으세요.
ㄴ. 가방은 휴게실에 두세요.
- 4) 물건이 움직여서 도착하는 장소를 표현한다.
([물건 등]이 [장소명사]에 떨어지다/오다'와 같은 구성으로 많이 쓰임)
(1) ㄱ. 사과가 땅에 떨어졌어요.
ㄴ.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에서>

- 1)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표현한다.
(1) 오전에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공부해요.
(2) 회사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2) 행위가 시작되는 장소를 표현한다.

(1) 위탄 씨는 어제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2) 어디에서 왔어요?

3) 출발장소와 도착장소를 함께 말할 때에는 '~에서 ~까지' 구성으로 표현한다.

(1)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안산역에서 사당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 장소의 출발점과 시간의 출발점

장소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보통 '~에서(부터) ~까지'로 나타내는 비해 시간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보통 '~부터 ~까지'로 나타낸다.

(1)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꽤 멀어요. [장소]

(2)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라하드 씨는 아침에 빵을 먹어요.

(2) 라하드 씨는 아침이 빵을 먹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에'를 사용한다. 따라서 빵을 먹는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아침이'가 아니라 '아침에'라고 해야 한다.

정답_1

2. 시간을 나타내는 '에'

1) 일이 일어난 특정 시간을 표현한다.

(1) 알베르토 씨는 3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2) 자네알 씨는 오후 6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2) 일이 일어나는 기간을 표현한다. (주로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1) 저는 일 년에 2번 중국에 가요.

(2) 저는 하루에 화장품을 10개 정도 팔아요.

※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도 '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저는 하루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 음식은 입이 안 맞아요.
- (2)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

문제
풀이

‘에’는 일반적으로 장소, 시간을 표현할 때 많이 쓰지만, 비교나 평가의 기준과 대상을 표현할 때에도 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입’이 그러한 평가의 도구(기준)이므로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3. 행위의 대상이나 기준을 나타내는 ‘에’

‘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위치나 장소, 시간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행위의 대상이나 기준을 표현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행위나 평가의 대상을 표현한다.
 - (1) 이 음식은 **불면증에** 효과적이에요.
- 2)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표현한다.
 - (1) 그런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요.
- 3) 수를 세는 기준을 표현한다.
 - (1) 이 과자는 **천 원에** 두 개입니다.
- 4) 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 (1) **3에** 5를 더하면 8이다.
 - (2) **3에** 2를 곱하면 6이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할 수 없이, 할머니에게 애를 맡겼어요.
- (2) 할 수 없이, 할머니께 애를 맡겼어요.

문제
풀이

무엇을 전하거나 부탁하는 대상이 높은 사람일 때에 ‘에게’는 ‘께’로 바꿔 써야 한다. 이 문장에서 ‘할머니’는 존대 대상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께’를 써야 한다.

정답. 2

4. 부사격 조사 ‘에게’와 ‘께’

- 1) 에게: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표현한다.
 - (1) **알리 씨에게** 선물을 줬어요.
 - (2)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2) 께: '에게'를 높여서 표현할 때 쓴다.

- (1)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 (2) 사장님께 말씀하세요.

용어 해설

'친구에게, 학교에, 회사에서, 공장으로' 등에 사용된 '에게, 에, 에서, 으로' 등을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표현해 준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아이를 시택에다가 맡겨 놓고 왔어요.
- (2) 아이를 시택으로 맡겨 놓고 왔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표현할 때에는 '에다가'를 쓴다. 이 문장은 아이를 시택에 맡겼다는 뜻이므로 '에다가'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5. 부사격 조사 '에다가'

1)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표현한다.

- (1) 아이를 처가에다가 맡겨 놓고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갔어요.
- (2) 귀중한 물건은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세요.

2) 어떤 행위를 할 때 쓰는 도구나 수단, 방법을 표현한다.

- (1) 찬 음식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면 돼요.
- (2) 고기는 센 불에다가 구워야 맛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그동안 번 돈가 땅을 샀어요.
- (2) 그동안 번 돈으로 땅을 샀어요.

문제 풀이 어떤 일을 하는 도구나 재료를 표현할 때에는 '(으)로'를 쓴다. 돈은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가므로 '(으)로'를 써서, '돈으로'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 2

6.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으로'

1) 일을 하는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표현한다.

- (1) 연필로 쓰세요.
- (2)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2) 일을 하는 재료를 표현한다.

- (1) 소고기와 야채로 만들어요.
- (2) 남은 털실로 장갑을 만들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사오 씨는 아까 외국인주민센터에 출발했어요.
- (2) 사오 씨는 아까 외국인주민센터로 출발했어요.

문제
풀이

이동의 목적지나 방향을 표현할 때에는 ‘(으)로’를 쓴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사오 씨가 이동하는 목적지이므로 ‘(으)로’를 써서 ‘외국인주민센터로’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7. 목적지나 방향을 나타내는 ‘으로’

1)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이동의 목적지나 방향을 표현한다.

- (1) 지금 안산역으로 가세요.
- (2)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어제 베트남으로 출발하셨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호사인 씨가 올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대표로 뽑혔어요.
- (2) 호사인 씨가 올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대표를 뽑혔어요.

문제
풀이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신분을 표현할 때에는 ‘(으)로’를 쓴다. ‘커뮤니티 대표’는 호사인 씨의 올해 얻은 새로운 자격이나 신분을 표현한 말이므로 ‘(으)로’를 써서, ‘커뮤니티 대표로’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1

8.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

1) 자격이나 신분을 표현한다.

- (1) 저는 이번 축제에 베트남 대표로 참석했어요.
- (2) 이번 행사에 자원 봉사자로 참가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 (2) 저는 교통사고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문제
풀이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에는 ‘(으)로’를 쓴다. ‘교통사고’는 병원에 입원한 이유이므로 ‘(으)로’를 써서 ‘교통사고로’와 표현해야 한다. ‘(으)로’ 앞에는 병이나 사고 등을 표현하는 말이 온다.

정답. 1

9. 이유를 나타내는 '으로'

1) (병, 사고, 현상 등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표현한다.

- (1) 병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 (2) 사고로 다친 사람이 많아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더운 여름보다 시원한 가을이 좋아요.
- (2) 더운 여름에서 시원한 가을이 좋아요.

문제
풀이

비교 대상을 표현할 때에는 '보다'를 쓴다. 이 문장은 가을을 여름과 비교해 보면 시원한 가을이 더 좋다는 뜻이므로 '보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0.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보다'

1) 비교 대상을 표현한다.

- (1) 저는 삼겹살보다 불고기를 더 좋아해요.
- (2) 리나 씨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과일은 한국의 포도처럼 생겼군요.
- (2) 이 과일은 한국의 포도보다 생겼군요.

문제
풀이

어떤 것과 상태나 행동이 비슷한 것을 표현할 때에는 '처럼'을 쓴다. 이 문장은 어떤 과일의 모양이 한국의 포도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이므로 '처럼'을 쓰는 것이다.

정답_ 1

11. 비슷한 대상을 나타내는 '처럼'

1) 상태나 행동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 비슷함을 나타낸다.

- (1) 나란투야 씨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 해요.
- (2) 우리 아내는 연예인처럼 예뻐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정하이 씨는 친구한테 갔어요.
- (2) 정하이 씨는 친구를 갔어요.

문제
풀이

사람이나 동물을 뜻하는 말에 붙어서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표현할 때에는 '한테'를 쓴다.
이 문장은 정하이 씨가 만나러 찾아가 대상이 친구라는 뜻이므로 '한테'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2. 부사격 조사 '한테'

- 1)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표현한다.
 (1) 저는 민트라 씨한테 선물을 줬어요.
 (2) 틴 타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글을 쓸 때에는 사용하지 않음.

다음에 있는 남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남편: '일하지 말아요.'

- (1) 남편이 일하지 말아요.
- (2) 남편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 (3) 남편이 '일하지 말아요.'라고 했어요.

문제
풀이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그 말 뒤에 '고 (말)하다'나 '라고 (말)하다'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남편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는 '남편이 '일하지 말아요'라고 했어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 2, 3

13.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전할 때

- 1) 직접 인용('라고'): 누구에게 들은 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
 (글로 쓸 때에는 들은 말을 따옴표로 표시한다.)
 <형식>: [말한 사람]이 '[들은 말]'라고 (말)하다.
 <예문>: 남편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 2) 간접 인용('고'): 누구에게 들은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
 (들은 말의 형식이 일부 바뀔 수 있음, 글을 쓸 때 들은 말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음)
 <형식>: [말한 사람]이 [들은 말 고친 것]고 (말)하다.
 <예문>: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 음식을 좀 매워요.
- (2) 한국 음식은 좀 매워요.

문제
풀이

주제를 표현할 때에는 '은/는'을 쓴다. 이 문장은 한국 음식을 주제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은/는'을 쓰는 것이다.

정답_ 2

1. 보조사 '은/는'

1) 주제나 화제를 표현한다.

- (1) 제 **동생은** 중국에 있어요.
- (2) 한국 **음식은** 좀 매워요.

2)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을) 표현할 때 쓴다.

- (1)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고, **어머니는** 집에서 일을 해요.

용어 해설

'친구는, 친구도, 친구만' 등에 사용된 '은/는, 도, 만' 등을 '보조사'라고 한다. 보조사는 주어, 목적어 등을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등의 격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의미만 덧붙여 준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형은 서울에 갔어요. 누나가 서울에 갔어요.
- (2) 형은 서울에 갔어요. 누나도 서울에 갔어요.

문제
풀이

'또한, 역시'의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도'를 쓴다. 이 문장은 형만 서울에 간 것이 아니고 누나 '역시' 서울에 갔다는 뜻이므로 '도'를 쓰는 것이다.

정답_ 2

2. 보조사 '도'

1) '또한, 역시'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 (1) **저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 (2) 저는 매운 **음식도** 좋아해요.

2)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는 주로 ‘...도 ...도’의 구성으로 쓰인다.

- (1) 아들도 딸도 모두 사랑해요.
- (2) 맛있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친구들 모두 베트남에서 왔는데, 난티칸 씨도 태국에서 왔어요.
- (2) 이 친구들 모두 베트남에서 왔는데, 난티칸 씨만 태국에서 왔어요.

문제
풀이

‘다른 것을 제외한 하나’이라는 뜻을 표현할 때에는 ‘만’을 쓴다. 이 문장은 여러 사람 중에 난티칸 씨 혼자 태국에서 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왔다는 뜻이므로 ‘만’을 쓰는 것이다.

정답. 2

3. 보조사 ‘만’

1) ‘다른 것을 제외하고 오직/오로지’의 뜻을 표현한다.

- (1) 우리 한국어 반에서 저만 태국 사람이예요.
- (2) 우리 엄마는 한국 드라마만 좋아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수린: 하나 씨는 토요일에는 보통 뭐 하세요?

하나:

- (1) 저는 토요일도 친구 집에 놀러가요.
- (2) 저는 토요일마다 친구 집에 놀러가요.

문제
풀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라는 뜻을 표현할 때에는 ‘마다’를 쓴다. 이 문장은 토요일이 될 때면 빠지지 않고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뜻이므로 ‘마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 2

4. 보조사 ‘마다’

1)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라는 뜻을 표현한다.

- (1)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 (2) 저는 토요일마다 커뮤니티센터에 가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돈이 없어서 빵밖에 못 사요.
- (2) 돈이 없어서 빵은 살 수 있어요.

문제 풀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선택임을 표현할 때에는 '밖에'를 쓴다. '밖에'를 '안, 못, 없다, 모르다' 등의 부정 표현과 함께 쓰면 된다. 이 문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빵이라는 뜻이므로 '밖에'를 부정표현과 함께 써서 표현한 것이다.

정답_1

5. 보조사 '밖에'

1) '오로지, 오직'의 뜻을 표현한다.

- (1)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빨리 가야 해요.

▶ 단, '밖에'는 항상 '안, 못, 없다, 모르다, 않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 (부정 표현 중에서 '아니다, -지 말다'와는 함께 쓰지 않는다.)

- (1) 지금 돈이 2,000원밖에 안 남았어요.(O) [부정 표현 '안'과 결합]
- (2) ㄱ. 선생님밖에 아니예요.(X) [부정 표현 '아니다'와 결합]
- ㄴ. 조금밖에 먹지 마세요.(X) [부정 표현 '-지 말다'와 결합]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축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려요.
- (2) 축제는 오후 2시에 5시까지 열려요.

문제 풀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부터'와 '까지'를 쓴다. 이 문장은 축제의 시작 시간이 2시라는 뜻이므로 '2시부터'라고 쓰고, 끝나는 시간이 5시이므로 '5시까지'라고 한 것이다.

정답_1

6. 보조사 '부터'와 '까지'

<부터>

1)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간을 표현한다.

- (1)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해요.
- (2) 오늘부터 외국인주민센터에 출근해요.

2) '부터'는 끝을 나타내는 '까지'와 자주 함께 쓴다. 시간의 범위를 표현한다.

- (1)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해요.
-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3) (가끔 일반명사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한다는 순서의 의미를 표현한다.

- (1)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 (2) 다른 곳보다 외국인주민센터부터 방문하세요.

<까지>

1) 시간이나 공간의 끝 위치를 표현한다.

- (1) 내일 12시까지 안산역으로 오세요.
- (2) 대림동까지 어떻게 가요?

2) 주로 시작 위치를 표현하는 '부터, 에서' 등과 함께 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산에서 서울까지)

여러 개의 말을 이어주는 조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회사에서 한국 사람에게 밥을 먹어요.
- (2) 회사에서 한국 사람과 밥을 먹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를 함께 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와'를 쓴다. 회사에서 한국 사람은 밥을 함께 먹는 대상이므로 '와'를 쓰는 것이다.

정답_2

1. 접속 조사 '와/과'와 '부사격 조사 '와/과'

<접속 조사 '와/과'>

- 1) 여러 사람이나 물건을 대등하게 나열할 때에 사용한다.
 - (1) 책상 위에 책과 볼펜이 있어요.
 - (2)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샀어요.

<부사격 조사 '와/과'>

- 1) 어떤 일을 함께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쓴다. ('함께, 같이' 등의 말과 함께 쓰인다.)
 - (1) 내일 저는 미유키 씨와 시장에 (같이) 갈 거예요.
 - (2)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갈 거예요?
- 2)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쓴다.
 - (1) 한국의 날씨는 베트남과 달라요.
 - (2) 동생이 형과 비슷하게 생겼군요.
- 3) 상대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어요.
 - (2)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용어 해설

'어머니와 아버지, 영희하고 철수, 친구랑 애인' 등에 사용된 '와/과, 하고, 이랑' 등을 '접속 조사'라고 한다. 접속 조사는 앞뒤의 말을 나란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일요일에는 회사 동료들이랑 놀아요.
- (2) 일요일에는 회사 동료들을 놀아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를 함께 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이랑'을 쓴다. 일요일에 함께 노는 사람이 회사 동료이므로 '이랑'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2. 접속 조사 '이랑'과 부사격 조사 '이랑'

<접속 조사 '랑/이랑'>

- 1) 사물이나 사람을 나란히 연결할 때 쓴다. (주로 말할 때 사용하고, 글을 쓸 때에는 '-와/과'를 쓴다.)
 - (1) 아침에 무슬리 씨랑 부쿠드 씨를 만났어요.
 - (2) 집에 가서 개랑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해요.

<부사격 조사 '랑/이랑'>

- 1) 어떤 일을 함께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쓴다. ('함께, 같이' 등의 말과 함께 쓰인다.)
 - (1) 저는 동생이랑 도서관에 (같이) 갈 거예요.
 - (2) 일요일에는 친구랑 함께 놀아요.
- 2)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쓴다.
 - (1) 한강은 다른 곳의 강이랑 아주 다르군요.
 - (2) 이곳의 경치가 우즈베키스탄이랑 비슷해요.
- 3) 상대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 오랜만에 선생님이랑 통화했어요.
 - (2) 애인이랑 헤어져서 슬퍼요.

▶ '이랑'은 주로 말할 때 사용하고, 글을 쓸 때에는 '-와/과'를 쓴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마트에서 우유하고 빵을 샀어요.
- (2) 마트에서 우유에 빵을 샀어요.

문제
풀이

사람이나 사물을 나란히 연결할 때에는 '하고'를 쓴다. 마트에서 산 물건이 우유와 빵 2가지이므로 '하고'를 써서 나란히 연결한 것이다.

정답. 1

3. 접속 조사 ‘하고’와 부사격 조사 ‘하고’

<접속 조사 ‘하고’>

- 1) 사물이나 사람 등을 나란히 연결할 때 쓴다.
- (1) 마트에서 카리나 씨하고 푸트리 씨를 만났어요.
 - (2) 오늘하고 내일은 집에서 쉬어요.

<부사격 조사 ‘하고’>

- 1)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 (1) 오늘 레이고 씨하고 수원에 가요.
 - (2) 가을에는 동생하고 베트남에 갈 거예요.
- 2)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쓴다.
- (1) 한국은 베트남하고 달라요.
 - (2) 광어는 도다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 3) 상대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 어제 친구하고 만났어요.
 - (2) 레이첼 씨는 반팅 씨하고 친해요.

▶ ‘하고’는 주로 말할 때 사용하고, 글을 쓸 때에는 ‘-와/과’를 쓴다.

‘산과 바다 중에서 한 곳만 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 (1) 이번 휴가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갈 거예요.
- (2) 이번 휴가 때는 산과 바다에 갈 거예요.

문제
풀이

둘 다 가능한 문장이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 1번 ‘이번 휴가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갈 거예요’는 산과 바다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간다는 뜻이다. ‘(이)나’는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2번 ‘이번 휴가 때는 산과 바다에 갈 거예요’는 산과 바다 두 곳에 모두 간다는 뜻이다. ‘과’는 두 가지 이상을 나란히 연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답_1

4. 접속조사 '나/이나'와 보조사 '나/이나'

<접속 조사>

- 1)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여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 (1) 회사에 갈 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 (2) 이 카페에서는 주로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어요.

<보조사>

- 1) 만족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선택임을 표현한다.
 - (1) 배가 고프는데, 김밥이나 먹어요.
 - (2) 날이 더우니까 바다에나 가요.
- 2) 수나 양이 생각보다 크거나 많음을 표현한다.
 - (1) 우리 커뮤니티 회원은 100명이나 돼요.
 - (2) 어느새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어요.

조사들의 결합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일이 다른 직업보다 여유가 있어요.
- (2) 이 일이 다른 직업보다 여유가 있어요.

문제
풀이

'이 일이 다른 직업보다 여유가 있어요.'라고 표현해야 한다.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이'는 '보다'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문장에 따라 '직업이'라고 표현하거나 '직업보다'와 같이 써야 한다.

정답_2

1. 조사 결합

- (1) '이/가, 을/를, 의, 이다'는 같이 쓸 수 없다.
 - (1) 친구가를/친구를가(X), 학생이의/학생의이(X), 친구가이다/친구이다가(X)
- (2) '은/는, 도, 만' 등은 '이/가, 을/를, 의'와 같이 쓸 수 없다.
 - (1) 친구는가/친구가는(X), 학생은를/학생를은(X)
- (3) '은/는, 도, 만' 등은 '에, 에서' 등과 함께 쓰일 수도 있다. 함께 쓰일 경우에는 '에, 에서' 등이 앞에 나온다.
 - (1) 집에는, 집에서는, 집으로는(O)
 - (2) 집는에, 집는에서, 집는으로(X)
- (4) '만, 까지, 밖에, 부터' 등은 뒤에 다른 조사가 더 붙을 수 있다.
 - (1) 친구만이, 친구만을(O)
 - (2)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O)
 - (3) 서울부터가, 서울부터를(O)

조사의 생략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말을 남편 안 배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배웠어요.
(2) 한국말을 남편한테 안 배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배웠어요.

문제
풀이

말을 할 때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1번 문장은 '남편-한테'에서 '한테'를 생략했기 때문에, 표현 자체도 어색하고, 그 의미도 남편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 를, 에/에서/에게, 은/는/도/만'과 같은 말을 생략하지 않은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정답. 2

1. 지나친 조사의 생략

1) 일반적으로 '이/가', '을/를', '의'는 생략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다.

- (1) ㄱ. 제냐 씨가 외국인주민센터에 갔어요.(O)
 ㄴ. 제냐 씨 외국인주민센터에 갔어요.(O)
(2) ㄱ. 무함마드 씨가 이번에 자동차를 샀어요.(O)
 ㄴ. 무함마드 씨가 이번에 자동차 샀어요.(O)
(3) ㄱ. 이곳은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에요.(O)
 ㄴ. 이곳은 우리 부모님 고향이에요.(O)

2) '에/에게/에서, 로/로서/로써, 보다' 등은 생략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ㄱ. 루터 씨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공부해요.(O)
 ㄴ. 루터 씨는 외국인주민센터 공부해요.(X)
(2) ㄱ. 형은 오이를 칼로 잘랐어요.(O)
 ㄴ. 형은 오이를 칼 잘랐어요.(X)
(3) ㄱ. 불고기보다 비빔밥이 더 좋아요.(O)
 ㄴ. 불고기 비빔밥이 더 좋아요.(X)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

II. 접사와 어미

28	어떤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시킬 때 쓰는 접사
30	주어를 높이는 어미
31	지나간 일(과거)을 나타내는 어미
32	주어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미
33	문장을 끝맺는 어미
36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어미
40	순서를 나타내는 어미
43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어미
44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미
48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51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55	비교/비유를 나타내는 어미
56	부정사 앞에 쓰는 어미
57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59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어미

어떤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시킬 때 쓰는 접사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물고기가 너무 빨라서 안 잡혀요.
- (2) 물고기가 너무 빨라서 안 잡아요.

문제
풀이

문장의 주체가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히, 리, 기'와 같은 말을 동사에 덧붙여야 한다. 이 문장은 '물고기'가 누군가의 잡는 행동에 영향을 받은 대상임을 표현한 것이므로 '-히'를 써서 '잡-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1

1. 어떤 일을 당할 때 쓰는 접사 '-이/히/리/기-'

1) (동사 뒤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말을 붙여) 문장의 주체가 누군가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잡다 → 잡히다])

- (1)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히-다]
- (2) 문 앞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보-이-다]
- (3) 무대 앞 쪽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몰-리-다]
- (4)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겨요. [감-기-다]

▶ 단, '-이/히/리/기-'가 모든 동사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결합이 가능한 동사가 정해져 있고 결합할 수 있는 접사 형태도 다르다. 접사 형태 별로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이: 짝-이-다, 보-이-다, 꺾-이-다, 낚-이-다, 닭-이-다, 묶-이-다, 섞-이-다
- (2) 히: 굶-히-다, 달-히-다, 막-히-다, 먹-히-다, 뽀-히-다, 워-히-다, 잡-히-다
- (3) 기: 끓-기-다, 담-기-다, 빼앗-기-다, 씻-기-다, 안-기-다, 찢-기-다, 신-기-다
- (4) 리: 끌-리-다, 날-리-다, 들-리-다, 떨-리-다, 밀-리-다, 팔-리-다, 풀-리-다

용어 해설

'보이다, 읽히다, 끓기다, 들리다'와 같이 동사와 문장을 끝내는 '-다' 사이에 있는 '-이/히/기/리'를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많지 않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수지 씨가 친구에게 자기 옷을 입혔어요.
- (2) 수지 씨가 친구에게 자기 옷을 입었어요.

문제 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는 문장은 '-이, 히, 리, 기, 우, 추'와 같은 말을 써야 한다. 이 문장은 수지 씨가 친구에게 자기 옷을 입도록 시켰다는 의미이므로 '-히'를 써서 '입-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1

2. 어떤 일을 남에게 시킬 때 쓰는 접사 '-이/히/리/기/우/추-'

1) (동사 뒤에 '-이-, -히-, -리-, -기-, -우-, -추-'와 같은 말을 붙여)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먹다 → 먹이다])

- (1)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어요. [먹-이-다]
- (2) 선생님께서 유키 씨에게 책을 읽히셨어요. [읽-히-다]
- (3) 저 아저씨가 아이를 울렸어요. [울-리-다]
- (4) 결혼식 사회를 본 이로리 씨는 참석자들을 여러 번 웃겼어요. [웃-기-다]
- (5) 새벽에 메델린 씨가 친구를 깨웠어요. [깨-우-다]
- (6) 블라디슬라브 씨 정답을 맞춰 보세요. [맞-추-다]

▶ 단, '-이-, -히-, -리-, -기-, -우-, -추-'를 모든 동사에 붙일 수 없다. 결합이 가능한 동사가 정해져 있고 결합할 수 있는 접사 형태도 각기 다르다. 접사 형태 별로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이: 먹-이-다, 녹-이-다, 죽-이-다, 속-이-다
- (2) 히: 읽-히-다, 입-히-다, 잡-히-다, 익-히-다, 앉-히-다, 씹-히-다, 맞-히-다
- (3) 기: 안-기-다, 씻-기-다, 말-기-다, 웃-기-다, 숨-기-다, 남-기-다, 옮-기-다
- (4) 리: 알-리-다, 들-리-다, 울-리-다, 놀-리-다, 살-리-다, 돌-리-다, 늘-리-다
- (5) 우: 깨-우-다, 피-우-다, 끼-우-다, 비-우-다, (짐을) 지-우-다
- (6) 추: 갖-추-다, 맞-추-다, 늦-추-다, 낮-추-다

주어를 높이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남자 친구는 필리핀에 가셨어요.
- (2) 남자 친구는 필리핀에 갔어요.

문제
풀이

행위자가 존대 대상일 때에는 ‘-시-’를 쓰지만, 존대 대상이 아닐 때에는 ‘-시-’를 쓰지 않는다. ‘남자 친구’는 존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쓰지 않는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 등 존대 대상이 행동자일 때에만 ‘-시-’를 쓴다.

정답. 2

1. 선어말어미 ‘-시-’

- 1) 행위자(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높여서 표현할 때 쓴다.
 - (1)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오-시-었-어요)
 - (2) 사장님께서 알렉산드르 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시-었-어요)

용어 해설

‘가-시-었-어요’의 ‘-시-’나 ‘-었-’과 같이 동사 ‘가-’와 문장을 끝내는 어미 ‘-어요’ 사이에 나타나는 어미 ‘-시-’나 ‘-었-’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지나간 일(과거)을 나타내는 어미

‘라단 씨, 어제 뭐 했어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음!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 (2) 음! 어제 친구를 만나요.

문제
풀이

이 문장은 지금이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표시하는 ‘-었-’을 써야 한다.

정답_ 1

1. 선어말어미 ‘-었-’

1)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

- (1)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2) 동작이 끝나 현재까지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이제야 친구를 만났어요.

용어 해설

어떤 행동을 한 시간을 표현해주는 것을 ‘시제’라고 한다. 동작이 일어난 시간에 따라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구분한다. ‘-었-’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을 표현할 때 동사 뒤에 결합하는 어미이다.

주어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미

‘라단 씨,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올해에는 꼭 담배를 끊겠어요.
- (2) 올해에는 꼭 담배를 끊어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는 ‘-겠-’을 쓴다. 위 문제에서는 올해에는 금연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담배를 끊겠어요,’ ‘담배를 끊겠습니다.’와 같이 동사에 ‘-겠-’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1

1.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겠-’

- 1) (동사와 결합하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때 쓴다. (평서문일 때는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함, 동사와 결합 가능, 형용사와 결합 불가능)
 - (1) 내일 꼭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O) (동사)
 - (2) 내년에는 꼭 예쁘겠어요. (X) (형용사)

▶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2인칭이어야 함.

‘아마드 씨,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와요.
- (2)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오겠어요.

문제
풀이

어떤 일을 추측할 때에는 ‘-겠-’을 쓴다. 이 문제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내일 날씨를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이므로, ‘-겠-’을 써서, ‘비가 오겠어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2.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겠-’

- 1)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거나 일어날 일을 추측하여 표현할 때 쓴다.

<동사의 경우>

- (1) 비행기 시간을 보니, 민경 씨는 어제쯤 베이징에 도착했겠어요. (과거의 일 추측)
- (2) 나탈리아 씨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겠어요. (현재의 일 추측)
- (3) 곧 버스가 도착하겠어요. (미래의 일 추측)

<형용사의 경우>

- (1) 지금 모습을 보니, 게이코 씨는 어렸을 때도 아주 예뻐했어요. (과거 상태 추측)
- (2) 엘리나 씨를 보니, 애도 아주 예쁘겠어요. (현재 상태 추측)

문장을 끝맺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 (2) 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

문제 풀이

상대방을 높이지 않으면서 편하게 어떤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에는 '-어'를 쓴다. 이 문장은 베트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편하게 전달하는 경우이므로 '-어'를 쓴다.

정답_ 2

1. 종결어미 '-어(요)'

1)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내용을 편하게 말할 때 쓴다.

- (1) 요즘 바빠(요).

2) 상대방에게 편하게 물어볼 때 쓴다.

- (1) 지금 자(요)?

3) (동사에 붙어) 편한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요청, 권유를 할 때 쓴다.

- (1) 여기 앉아(요).
- (2) 같이 들어가(요).

▶ '바빠요'처럼 '-어요'를 쓰면 존댓말이고, '바빠'처럼 '-어'를 쓰면 반말 표현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어요'와 '-어'를 구별해서 써야 한다.

용어 해설

'먹-어요, 먹-습니다'와 같이 동사 '먹-' 뒤에 결합하여 문장을 끝내는 '-어요, 습니다'와 같은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한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아버지께서 내일 한국에 오세요.
- (2) 아버지께서 내일 한국에 와요.

문제 풀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높이면서 생각이나 내용을 편하게 전달할 때에는 '-세요'를 쓴다. 이 문장에서 한국에 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 아버지는 높임 대상으로 '-세요'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2. 종결 어미 ‘-으세요’

1) 주체(주어)를 높이면서 어떤 사실을 편하게 전달할 때 쓰는 말이다.(▶ 2), 3)번 예문 참조)

- (1) 선생님께서 수업하세요.
- (2) 어머니는 냉면을 좋아하세요.
- (3) 오빠가 경찰이세요.

2) 주체(주어)를 높이면서 편하게 질문을 할 때 쓰는 말이다.

- (1) 무슨 책을 읽으세요?
- (2) 아직도 더우세요?
- (3) 저 분이 남편이세요?

3) (동사에 붙어) 상대방(듣는 사람)을 높이면서 편하게 요청을 할 때 쓰는 말이다.

- (1)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 (2) 빵이랑 우유를 주세요.
- (3) 한국어 시간에는 한국어로 이야기하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에 왜 왔습니다?
- (2) 한국에 왜 왔습니까?

문제
풀이

예의를 갖추서 질문을 할 때에는 ‘-습니까?’를 쓴다. 이 문장은 한국에 온 이유를 묻는 뜻이므로 ‘-습니까?’를 쓰는 것이다.

정답_ 2

3. 종결어미 ‘-습니까’

1) (윗사람이나 높임의 대상인 상대방에 쓰여) 정중하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다.

- (1) 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 (2) 자기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어디에 가는지 알고 싶어요.
- (2) 어디에 가기 알고 싶어요.

문제
풀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일을 표현할 때에는 ‘-는지’를 쓴다. 이 문장은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의문이라는 의미이므로 ‘-는지’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4. 종결어미 '-은지/는지'

1)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일을 표현할 때 쓴다.

- (1) 어떤 것이 좋은지 말해 주세요.
- (2)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전화를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내일 한국에 오신대요.
- (2) 전화를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내일 한국에 오신다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내용을 말할 때에는 '-ㄴ대요'를 쓴다. 이 문장은 전화로 들은 내용이 부모님이 내일 한국에 온다는 것이므로 '-ㄴ대요'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5. 종결어미 '-는대/ㄴ대/대/래(요)'

1)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전달할 때 쓴다.

- (1)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대(요).
- (2) 데니스 씨는 오늘 못 온대(요).

▶ '온대요'처럼 '-대요'를 쓰면 존댓말이고, '온대'처럼 '-대'를 쓰면 반말 표현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대요'와 '-대'를 구별해서 써야 한다.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우리 남편은 착해도 잘 생겼어요.
- (2) 우리 남편은 착하고 잘 생겼어요.

문제
풀이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내용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는 ‘-고’를 쓴다. 남편이 착한 것과 잘생긴 사실은 어떤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남편의 두 가지 특징이므로 ‘-고’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2

1. 대등 접속의 ‘-고’

- 1) (동사, 형용사, ‘이다’에 붙어)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내용을 나란히 연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1)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해요.
 - (2) 한국 음식은 값이 싸고 맛이 있어요.

용어 해설

‘밥을 먹고 회사에 가요’에서 ‘-고’와 같은 어미를 ‘연결 어미’라고 한다. 앞의 문장을 끝내지 않고 뒤의 문장과 다양한 의미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휴일에는 안산에서 놀아 수원에서 놀아요.
- (2) 휴일에는 안산에서 놀거나 수원에서 놀아요.

문제
풀이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거나’를 쓴다. 이 문장은 안산에서 놀 때도 있고, 수원에서 놀 때도 있다는 뜻이므로 ‘-거나’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2

2. 선택의 ‘-거나’

- 1) 둘 이상의 내용을 나열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함을 표현한다.
 - (1) 휴일에는 집에서 쉬거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요.
- 2) (주로 ‘-거나 -거나’의 구성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든 괜찮다는 표현이다. ‘-거나’로 연결되는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 (2)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조건 떠날 거예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든지 원곡동에 놀러 가든지 해요.
- (2)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고 원곡동에 놀러가고 해요.

문제 풀이 두 가지 이상의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든지'를 쓴다. 이 문장은 집에서 쉴 때도 있고, 원곡동에 놀러 갈 때도 있다는 뜻이므로 '-든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_ 1

3. 선택의 '-든지'

- 1) 여러 가지 내용을 나열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함을 표현한다.
 - (1) 이번 휴가 때에는 중국에 가든지 베트남에 갈 거예요.
 - (2) 휴일에는 집에서 쉬든지 안산에 놀러 가든지 해요.
- 2)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어떻게'와 함께 쓰여) 어떠한 경우도 상관없이 어떤 문장의 사건이 일어남을 표현한다.
 - (1)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심하세요.
 - (2) 어디를 가든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 3) (주로 '-든지 -든지'의 구성으로) 대립되는 상황 중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뒷 문장의 사건이 일어남을 표현한다.
 - (1)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 (2) 제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에 살다가 고민 없어요.
- (2) 한국에 살면서 고민 없어요.

문제 풀이 둘 이상의 일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으)면서'를 쓴다. 이 문장은 한국에 사는 것과 고민이 없는 것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으)면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_ 2

4.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으면서'

- 1) 둘 이상의 행위나 상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할 때 쓴다.
 - (1) 운전하면서 전화하면 안 돼요. [동사]
 - (1) 이 옷은 얇으면서 따뜻해요. [형용사]
 - (2) 이곳은 직장이면서 가정이에요. [이다]

2) 둘 이상의 행위나 상태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왜 친구에게 화를 내요?
- (2) 노력을 안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친구를 만났어요.
- (2) 지하철에서 내리면 친구를 만났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의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이어서 뒤 문장의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자마자’를 쓴다.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내린 후 곧바로 친구를 만나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자마자’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5.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자마자’

1) (동사와 결합하여) 앞 문장의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이어서 뒤 문장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표현한다.

- (1) 너무 더워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 (2) 친구를 만나자마자 카페로 들어갔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좋아하지 않아요.
- (2)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면 엄마는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
풀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나란히 연결할 때에는 ‘-지만’을 쓴다. 말하는 이 자신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지만’을 쓰는 것이다.

정답_ 1

6. 반대 내용을 연결하는 ‘-지만’

1)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사용한다. 앞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뒤 문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나 다른 내용을 나란히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 (1) 안나 씨는 한국어를 잘 하지만 저는 잘 못해요.
- (2) 방이 작지만 아주 깨끗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형은 한국어를 잘하나 동생은 잘 못해요.
- (2) 형은 한국어를 잘하면 동생은 잘 못해요.

문제
풀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나란히 연결할 때에는 ‘-으나’를 쓴다. 형은 한국어를 잘 하는데, 동생은 반대로 잘 못한다는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으나’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7. 반대 내용을 연결하는 ‘-으나’

1)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사용한다. 앞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뒤 문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나 다른 내용을 나란히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글쓰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 말하기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 (1) 방이 작으나 아주 깨끗해요.
- (2) 아내는 직장인이나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어미

‘이리나 씨, 내일 뭐 할 거예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 (2)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친구를 만날 거예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의 일이 일어나고 뒤 문장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임을 표현할 때 ‘-고’를 쓴다. 먼저 친구를 만난 이후에 친구와 함께 중앙동으로 가는 것이므로, ‘-고’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_1

1. 순서대로 진행됨을 나타내는 ‘-고’

1) (동사에 붙어) 앞 문장의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 뒤 문장의 내용이 일어난 것임을 표현한다.

- (1) 우리 남편은 꼭 물을 **먹고** 밥을 먹어요.
- (2) 저녁에는 밥을 **먹고** 산책을 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샤워를 하고서 바로 회사에 갈 거예요.
- (2) 샤워를 하니깐 바로 회사에 갈 거예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먼저 이루어진 후 뒤 문장이 순서대로 일어났을 때에는 ‘-고서’를 쓴다. 이 문장은 샤워를 한 후에 이어서 바로 회사에 간다는 뜻이므로 ‘-고서’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2. 순서대로 진행됨을 나타내는 ‘-고서’

1) (동사 뒤에 붙어) 시간적으로 앞 문장이 먼저 이루어진 후 뒤 문장이 순서대로 일어났음을 표현한다.

- (1) 일을 **끝내고서** 집으로 갈 거예요.
- (2) 친구와 밥을 먼저 **먹고서** 영화를 봤어요.

▶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수 없다.

- (1) 예쁘고서 귀엽다.(X) - 형용사와 결합 불가
- (2) 중국 사람이고서 한국에 왔다.(X) - ‘이다’와 결합 불가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가리나 씨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 (2) 가리나 씨는 전화를 받아서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문제 풀이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연결할 때에는 '-더니'를 쓴다. 이 문장은 가리나 씨가 전화 받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이후에 예상 밖으로 가리나 씨가 웃기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더니'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3. 일이 전환됨을 나타내는 '-더니'

- 1)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에 이어, 다른 사건이 발생함을 표현할 때 쓴다.
 - (1) 밥을 먹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 (2) 불꽃이 튀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 2)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에 이어, 대조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연결할 때 쓴다.
 - (1) 처음에는 쉬운 것 같더니 점점 어려워요.
 - (2)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좀 춥군요.
- 3)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에 이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여행을 좋아하더니 결국 여행사에 취직했군요.
 - (2) 헤리 씨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한국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빗을 얻어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 (2) 빗을 얻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어다가'를 쓴다. 이 문장은 빗을 얻은 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어다가'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4. 일이 전환됨을 나타내는 '-어다가'

- 1) 앞 문장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뒤 문장에서 어떤 행위를 이어서 할 때 쓴다.
 - (1)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빌려다가 발표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 (2) 물고기를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였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아파서 피아노 학원에 가면, 그냥 돌아왔어요.
- (2) 아파서 피아노 학원에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를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다가’를 쓴다. 이 문장은 피아노 학원을 가는 도
중에 너무 아파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므로 ‘-다가’를 써야 한다.

정답. 2

5. 일이 전환됨을 나타내는 ‘-다가’

1) 앞 문장의 행위를 중단하고 뒤 문장의 행위로 바뀌었음을 표현한다.

- (1) 책을 읽다가 잤어요.
- (2)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10시에 집에 갔어요.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친구가 두 명이니까, 친구 한 명은 한국에 있어요.
- (2) 친구가 두 명인데, 친구 한 명은 한국에 있어요.

문제
풀이

뒤 문장의 내용에 대해 앞 문장이 그 배경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에는 ‘-은데’를 쓴다. 친구가 2명인 상황에서 그 중에 1명은 한국에 함께 있다는 뜻이므로 ‘-은데’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_ 2

1. 상황을 나타내는 ‘-은데/는데’

- 1) 뒤 문장의 내용에 대해 앞 문장이 그 배경이나 상황을 표현한다.
 - (1) 마트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 (2)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 2) 앞 문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뒤 문장에 이어짐을 표현한다.
 - (1)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 (2)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맛있게 만들지는 못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미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한국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알게 되었어요.
- (2) 한국 친구가 노래를 불러서 알게 되었어요.

문제
풀이

질문의 내용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2

1. 이유를 나타내는 ‘-어서’

- 1)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일 때 사용한다.
 - (1)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
- 2) (‘이유’ 이외에)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에도 쓴다.
 - (1)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 3) (‘이유’ 이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낼 때에도 쓴다.
 - (1) 12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 4) (‘찾다’ 등 일부 동사와 가끔 결합하여) 앞 문장이 문장의 목적을 표현할 때에도 쓴다.
 - (1) 동생을 찾아서 교회에 갔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니 너무 좋아요.
- (2)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너무 좋아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이유나 판단의 근거임을 표현할 때에는 ‘-(으)니’를 쓴다. 이 문장은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것이 너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한 이유이므로 ‘-(으)니’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2.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

- 1)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이유나 원인, 판단의 근거임을 표현한다. (‘-(으)니까’로 바꿔 쓸 수 있다.)
 - (1) 비가 오니 행사가 취소될 거예요.
 - (2) 오늘은 만나기 힘드니 내일 만나요.

2) ('이유' 이외에) 앞 문장의 행동을 한 결과 뒤 문장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표현할 때에도 쓴다.

- (1) 창문을 열어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 (2) 한국에 살아 보니 한국 사람들이 보기와는 달리 친절한 것을 느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비가 오고 우산을 가져가세요.
- (2)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는 '-(으)니까'를 쓴다.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으)니까'를 써야 한다.

정답_ 2

3.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

1)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이유나 원인, 또는 판단의 근거임을 표현한다. 앞 문장의 내용 때문에 뒤 문장의 내용이 그 결과나 판단의 의미를 지닐 때 사용한다.

- (1)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 (2)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 주세요.

2) (동사와 결합하여 '이유' 이외에) 앞 문장의 행동을 한 결과 뒤 문장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을 표현할 때에도 쓴다. 주로 '-어 보니까, -고 보니까, -다가 보니까'의 구성으로 많이 나타난다.

- (1) 하늘을 보니까 오늘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 (2) 한국어를 배워 보니까 재미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모두 모였으므로 행사를 시작할게요.
- (2) 모두 모였어도 행사를 시작할게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근거임을 표현할 때에는 '-(으)므로'를 쓴다. 이 문장은 행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모두 모였기 때문이라는 뜻이므로 '-(으)므로'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4. 이유를 나타내는 '-으므로'

1)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근거를 표현할 때 쓴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 (1) 황사가 심하므로 외출을 삼가주세요.
- (2)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래된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났어요.
- (2) 오래된 음식을 먹느라고 배탈이 났어요.

문제
풀이

뒤 문장에 대한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 ‘-다가’를 쓴다. 이 문장은 배탈이 난 이유가 오래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므로 ‘-다가’를 쓴 것이다.

정답. 1

5. 이유를 나타내는 ‘-다가’

1)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앞 문장이 뒤 문장 행위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임을 표현한다.

- (1) 계속 떠들다가 선생님께 혼났어요.
- (2) 밥을 급하게 먹다가 체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집 살 돈을 모으느라고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 (2) 집 살 돈을 모으면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에는 ‘-느라고’를 쓴다. 이 문장은 집 살 돈을 모으는 일 때문에 가족 여행을 못 갔다는 뜻이므로 ‘-느라고’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6. 이유를 나타내는 ‘-느라고’

1) (동사 뒤에 붙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임을 표현한다. 뒷 문장은 앞 문장의 사건으로 인한 대가를 치렀음을 나타낸다.

- (1)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 (2) 친구와 노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2)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도 쓴다.

- (1) 루딘 씨는 회사에 가느라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 (2) 한국어 공부를 하느라고 학원에 다녀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우딘 씨는 덩다고 냉면을 먹었어요.
- (2) 우딘 씨는 덩고 냉면을 먹었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이유나 원인일 때에는 '-다고'를 쓴다. 이 문장은 우딘 씨가 덩기 때문에 냉면을 먹었다는 뜻이므로 '-다고'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7. 이유를 나타내는 '-는다고/다고/라고'

1)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행위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 쓴다.

- (1) 친구와 논다고 돈을 다 썼어요.
- (2) 잔타 씨는 출다고 먼저 집에 갔어요.

2)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도 쓴다.

- (1) 루딘 씨는 회사에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 (2)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책을 샀어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어 교실에 다녀요.
- (2)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교실에 다녀요.

문제
풀이

어디로 이동할 때 그 목적을 표현하려면 ‘-(으)러’를 써야 한다.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목적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므로 ‘-(으)러’를 써야 한다.

정답_1

1.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으러’

- 1) 이동의 목적을 표현한다. 앞 문장의 행동을 하기 위해 이동함을 표현한다. (뒤 문장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가 나타난다.)
 - (1)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 (2) 일을 하러 회사에 출근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레베카 씨는 옷을 사려고 동대문 시장에 가요.
- (2) 레베카 씨는 옷을 사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요.

문제
풀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나 목적을 표현할 때에는 ‘-(으)려고’를 쓴다. 레베카 씨가 ‘동대문 시장’에 가는 목적은 옷을 사기 위한 것이므로 ‘-(으)려고’를 써야 한다.

정답_1

2.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으려고’

- 1) 뒤 문장의 행동을 하는 의도나 목적을 표현한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뒤 문장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 (1)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해요.
 - (2) 아내에게 주려고 꽃을 샀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담배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 (2) 담배를 끊으려면 끊을 수가 없어요.

문제 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을래야'를 쓴다. 이 문장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을래야'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3. 의도의 '-을래야'

- 1)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어는 아니다.)
 - (1)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 (2) 여행을 갈래야 시간이 있어야죠.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더우니까 시원하게 문을 열어 주세요.
- (2) 더우니까 시원해 문을 열어 주세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할 때에는 '-게'를 쓴다. 이 문장은 시원해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을 열라는 것이므로 '-게'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_1

4. 목적을 나타내는 '-게'

- 1) 앞 문장은 뒤 문장의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한다. 뒤 문장은 앞 문장의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을 표현한다.
 - (1)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2) 모두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해 주세요.
- 2) ('목적' 이외에) 앞 문장이 뒤 문장 행위의 방식이나 정도를 표현할 때에도 쓴다. ('어떻게, 얼마나'에 대한 답으로 자주 사용함)
 - (1) 머리를 짧게 잘라 주세요.
 - (2) 동대문에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바실리사 씨가 편하게 오도록 자동차를 빌렸어요.
- (2) 바실리사 씨가 편하게 와서 자동차를 빌렸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행위를 하는 목적을 표현할 때에는 '-도록'을 쓴다. 이 문장은 바실리사 씨가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빌렸다는 뜻이므로 '-도록'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5. 목적을 나타내는 '-도록'

1)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 문장의 행위를 하는 목적을 표현할 때 쓴다.

- (1)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 (2)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2) ('목적' 이외에) 뒤에 나오는 일의 정도나 기간을 강조할 때에도 쓴다.

- (1) 목이 쉬도록 응원했어요.
- (2)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 (3)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 (4) 밤 늦도록 공부했어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이도에 가서, 번데기 파는 곳이 많이 있어요.
- (2) 오이도에 가면, 번데기 파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문제 풀이

뒤 문장에 대한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으)면’을 쓴다. 이 문장은 일단 오이도에 가는 조건이 충족되면 번데기 파는 곳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으)면’을 쓰는 것이다.

정답: 2

1. 조건과 가정의 ‘-으면’

- 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여) 조건을 나타낸다.
 - (1) 타마라 씨,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동사)
 - (2) 신발이 너무 크면 발이 아파요. (형용사)
 - (3) {토요일이면/토요일이 아니면} 안산에 놀러 가요. (‘이다, 아니다’)
- 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여) 가정을 나타낸다.
 - (1) 오늘 못 가면 내일이라도 다시 갈 거예요. (동사)
 - (2) 키가 좀 컸으면 더 좋았텐데. (형용사)
 - (3) 내일이 {휴일이었으면/휴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다, 아니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레이코 씨가 조금 더 한국어 공부를 한다면,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2) 레이코 씨가 조금 더 한국어 공부를 하니까, 한국인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이

가정하는 내용의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일 때에는 ‘-ㄴ다면’을 쓴다. 이 문장은 레이코 씨가 한국어 공부를 더 하는 가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면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ㄴ다면’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2. 조건의 ‘-는다면/다면/라면’

- 1)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임을 표현할 때 쓴다.
 - (1) 형이 한다면 저도 할 거예요.
 - (2) 방이 따뜻하다면 날씨가 추워도 상관없어요.
 - (3) 만약에 제철 씨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외국인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돼요.
- (2) 어떤 방법이 좋으면 외국인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돼요.

문제
풀이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할 때에는 ‘-냐면’을 쓴다. 이 문장은 어떤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뒤 문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 말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경우이므로, ‘-냐면’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3. 조건의 ‘-냐면’

- 1) 어떤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이때 앞의 문장은 스스로 질문한 내용을 인용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뒤의 문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다.
 - (1)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느냐면 고향 친구를 만나고 있다.
- 2) 누군가가 질문하였을 경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이때 앞의 문장은 누군가가 질문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뒤의 문장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 (1) 마트에서 무엇을 사왔느냐면 사과와 배를 사왔다고 대답하세요.
 - (2) 누구를 좋아했냐면 선생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중국에 도착하거든 꼭 연락해요.
- (2) 중국에 도착하며 꼭 연락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임을 표현할 때에는 ‘-거든’을 쓴다. 이 문장은 중국에 도착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연락을 하라는 뜻이므로 ‘-거든’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4. 조건의 ‘-거든/거들랑’

- 1)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조건을 표현한다. 이때 뒤 문장은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으로만 쓰인다.
 - (1)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비싸거들랑 사지 말아요.
 - (2) 제주도에 가거든/가거들랑 일출봉에 꼭 가보세요.
 - (3) 펠릭스 씨를 만나거든/만나거들랑 안부 좀 전해 주세요.

▶ ‘-거들랑’은 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글을 쓸 때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유수프 씨, 담배를 끊어야 몸이 건강해져요.
- (2) 유수프 씨, 담배를 끊어서 몸이 건강해져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표현할 때 '-어야'를 쓴다. 이 문장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므로 '-어야'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5. 필수 조건의 '-어야'

1)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필수 조건임을 표현할 때 쓴다.

- (1)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 (2) 매일 운동해야 살을 뺄 수 있어요.

2) ('-어야 하다/되다'의 구성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 행위나 상황이 필수임을 표현한다. (앞에 '-으려면'과 자주 함께 쓰인다)

- (1) 이 옷을 사려면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해요.
- (2) 집에 가려면,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야 돼요.

※ 이 밖에 '-어야'는 '영향이 없음'을 표현할 때에 쓰기도 한다. 아무리 해 보아도 뒤 문장에 효과나 영향이 없음을 표현할 때 쓴다. 뒤 문장에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야'는 위의 '-어야'와 매우 다르다.

- (1) 습기가 많아서 선풍기를 틀어봐야 시원하지가 않아요.
- (2)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 실력이 좋아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 (2) 한국어 실력이 좋아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표현할 때 '-어야지'를 쓴다. 이 문장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실력이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므로, '-어야지'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6. 필수 조건의 '-어야지'

1)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필수 조건임을 표현할 때 쓴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 (1)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2) 우리가 초청을 해야지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매운 음식이 싫으면 열심히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 (2) 저는 매운 음식이 싫어도 열심히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문제
풀이

보통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안 만드는 법이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음식이 싫으면 그것을 안 만든다'라고 한다. 그런데 위 문장은 그러한 일반적인 행동 방식과 달리 '--음식이 싫은데도 그것을 열심히 만든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럴 경우에는 '-어도'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2

7. 불충분 조건의 '-어도'

- 1)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와 결합하여)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이어지는 사건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때 쓴다. 이때 앞 문장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 (1)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요. [동사와 결합]
 - (2) 옷이 얇아도 따뜻해요. [형용사와 결합]
 - (3) 어린이라도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이다'와 결합]
- 2) ('-어도 좋다/괜찮다/되다'의 형태로 쓰여) 허락의 의미를 표현한다.
 - (1) 들어와도 좋아요.
 - (2) 전화 좀 써도 돼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해요.
- (2) 화가 나서 참아야 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을 인정해도 뒤 문장의 내용이 예상이나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더라도'를 쓴다.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그 뒤에는 화가 났을 때 하는 행위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 문장은 화가 나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 뒤의 문장은 오히려 참아야 한다는 예상이나 기대와 다른 내용을 연결해주는 뜻이므로 '-더라도'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8. 불충분 조건의 '-더라도'

- 1)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경우, 그것에 이어지는 사건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를 때 쓴다. 앞 문장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 (1)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해요.
 - (2)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 공부는 꼭 해야 해요.

비교/비유를 나타내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친구에게 말을 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 (2) 친구에게 말을 하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문제 풀이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비슷함을 나타낼 때에는 ‘-듯이’를 쓴다. 이 문장은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므로 ‘-듯이’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 ‘-듯이’

1) ‘-듯이’의 형식으로, 비유를 할 때 쓴다.

- (1) 여기서부터는 고양이 걸듯이 사뿐사뿐히 걸어야 합니다.
- (2) 구름에 달 가듯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 (3) 마치 벌을 받듯이 두 팔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2) ‘-었듯이’의 형식으로, 뒷 문장의 일이 앞 문장의 것과 비슷함을 나타낼 때 쓴다.

- (1) 지난번에도/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예요.
- (2) 지난번에 내가 양보를 했듯이 이번엔 당신이 양보를 해 줘요.

3) (관용적 표현으로서) 주로 ‘말하다’(또는 말하는 행위 동사)나 ‘알다’(또는 생각하는 행위 동사)와 같은 동사와 결합하여, 뒤에서 말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이미 말했거나 알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1)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 (2) 네가 늘 강조했듯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 (3)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야.
- (4)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철수도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4) 속담을 인용할 때 쓴다.

- (1)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을 끝냈어요.
- (2)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아요.
- (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5) 비유적 표현으로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쓴다.

- (1)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자주 / 쉽게]
- (2) 제 친구는 돈을 물 쓰듯 써서 걱정이예요. [아끼지 않고 / 헤프게]
- (3)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빠르게 / 흔적도 없이]
- (4) 경찰들이 범인의 집을 이 잡듯 뒤졌어요. [살살이 / 세밀하게]

부정사 앞에 쓰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매운 음식을 먹어 못해요.
- (2) 저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와 같은 표현 앞에 '-지'를 쓰면 된다. 이 문장은 매운 음식 먹기를 부정하는 뜻이므로 '못하다' 앞에 '-지'를 쓰는 것이다.

정답. 2

1. 보조적 연결 어미 '-지'

- 1) (동사나 형용사에 붙고, '않다, 못하다, 말다' 등의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 어떤 행위나 상태에 대하여 부정할 때 사용한다.
- (1) 요즘 햄버거를 먹지 않았어요.
 - (2) 설악산에 가보지 못했어요.
 - (3)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해요.

용어 해설

보조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 어미'라 한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과 결합한다. 대표적인 보조적 연결 어미로는 "-어/아, -게, -지, -고"가 있다.

- (1) 읽어 주었다. / 막아 주었다. [보조적 연결 어미 '-어/아']
- (2) 읽게 하였다. [보조적 연결 어미 '-게']
- (3) 읽지 않았다. [보조적 연결 어미 '-지']
- (4) 읽고 있다. [보조적 연결 어미 '-고']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지나로스 씨는 매운 음식 먹기를 싫어해요.
- (2) 지나로스 씨는 매운 음식 먹어 싫어해요.

문제 풀이

어떤 문장을 한 낱말인 명사처럼 바꾸고 싶을 때에는 문장 끝에 ‘-기’를 쓴다. 이 문장은 ‘저는 00을 싫어해요’와 같은 표현에서 ‘00’ 자리에 ‘지나로스 씨가 매운 음식을 먹다’라는 문장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이므로, 문장 끝에 ‘-기’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준 것이다.

정답_1

1. 명사형 어미 ‘-기’

- 1)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바꿀 때 쓴다. 문장 마지막에 ‘-기’를 붙이면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만들 수 있으며, 주어, 목적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주어]
 - (2) 저녁에 산책하기를 좋아해요. [목적어]
 - (3) 제 특기는 춤추기예요. [서술어]
 - (4)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부사어]
- 2) ‘-기(가) 쉽다/어렵다/좋다/나쁘다/힘들다’와 구성으로 자주 쓰인다.
 - (1)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워요.
 - (2)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어요.
- 3) ‘-기(를) 좋아하다/싫어하다/바라다/원하다’ 등의 구성으로 자주 쓰인다.
 - (1) 김치 먹기를 좋아해요.
 - (2) 저는 이번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용어 해설

‘물을 마시기’와 같이 문장의 끝에 붙은 ‘-기’와 같은 어미를 ‘전성 어미’라고 한다. 전성 어미는 문장을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의 낱말과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 주는 전성 어미를 ‘명사형 어미(-음/기)’라고 하고, 명사형 어미가 붙은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은/는/을)’라고 하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문장을 ‘관형(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를 ‘부사형 어미(-게, -도록 등)’, 부사형 어미가 붙은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타오 씨는 친구가 작년에 결혼했음을 몰랐어요.
(2) 타오 씨는 친구가 작년에 결혼하는 몰랐어요.

문제
풀이

어떤 문장을 한 낱말인 명사처럼 바꾸고 싶을 때에는 문장 끝에 '-음'을 쓴다. 이 문장은 '저는 00을 몰랐어요'와 같은 표현에서 '00' 자리에 '친구가 작년에 결혼했다'라는 문장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이므로, 문장 끝에 '-음'을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준 것이다.

정답. 1

2. 명사형 어미 '-음'

- 1) 문장 전체를 한 낱말인 명사처럼 바꿀 때 쓴다. 문장 마지막에 '-음'을 붙이면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만들 수 있으며, 명사와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쓸 수 있다.
- (1) 점수를 보니, 그간 열심히 공부했음이 분명하군요. [주어]
 - (2)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어요. [목적어]
 - (3) 테이리치 씨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요. [부사어]
- 2) (주로 '(-음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나 '(-음을) 알다, 알려지다, 주장하다' 등의 구성으로 자주 쓰인다.
- (1) 이렇게 깨끗한 것을 보니, 하몬 씨가 정리했음이 확실해요.
 - (2) 나중에는 제가 바보같이 행동했음을 알았어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어미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어제 먹은 음식이 불고기예요.
- (2) 어제 먹는 음식이 불고기예요.

문제 풀이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만들어 주면서, 어떤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표현할 때에는 동사 뒤에 ‘-은’을 붙인다. 이 문장에서는 음식을 과거(어제)에 먹은 것이므로 ‘-은’을 쓰는 것이다.

정답_ 1

1. 관형형 어미 ‘-은’

1) (동사와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바꿀 때 쓰는 말로, 어떤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표현한다.

- (1) 동대문 시장에 간 사람은 웨일즈 씨예요.
- (2) 다 쓴 물건은 제 자리에 두세요.

2) (형용사와 결합하여) 과거가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 (1) 아름다운 강이 바로 앞에 보여요.
- (2)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결합하는 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에 주의.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지금 베트남에 간 이유는 비자 때문이에요.
- (2) 지금 베트남에 가는 이유는 비자 때문이에요.

문제 풀이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만들어 주면서, 어떤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할 때에는 동사 뒤에 ‘-는’을 붙인다. 이 문장에서는 베트남에 가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므로 ‘-는’을 쓰는 것이다.

정답_ 2

2. 관형형 어미 ‘-는’

1) (동사와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바꿀 때 쓰는 말로, 어떤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한다.

- (1) 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러빈 씨예요.
- (2) 루시타 씨가 찾는 물건은 여기에 없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것은 내일부터 읽는 책이에요.
- (2) 이것은 내일부터 읽을 책이에요.

문제
풀이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만들어 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는 동사 뒤에 '-을'을 쓴다. 이 문장에서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내일부터라는 미래에 책을 읽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므로 '-을' 쓰는 것이다.

정답. 2

3. 관형형 어미 '-을'

- 1)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바꿀 때 쓰는 말로, 어떤 행위가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표현한다.
 - (1) 한국어 교사로 일할 사람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 (2) 루시타 씨가 내일 만날 사람은 오조다 씨예요.
- 2)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 쓴다.
 - (1) 지금 식당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 (2) 남편도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우리 딸이 커가면서, 전에 예쁘던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2) 우리 딸이 커가면서, 전에 예쁜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
풀이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만들어 주면서, 과거의 행위나 상태를 떠올리고 그 상황이 중단되었음을 표현할 때에는 '-던'을 쓴다. 이 문장에서는 과거에 예쁜 딸의 얼굴을 떠올리는 동시에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내용을 표현하므로 '-던'을 쓰는 것이다.

정답. 1

4. 관형형 어미 '-던'

- 1) (동사와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바꿔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과거의 행위를 다시 떠올리는 동시에 그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어제 마시던 우유가 어디에 있지?
 - (2) 같이 놀던 친구가 없어졌다.
- 2) (형용사와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바꿔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가 이제는 중단되고 변화가 있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착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달라졌어요.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

III. 어휘와 문장 구성

- 62 문장에 뜻을 더해 주는 표현
- 70 자주 쓰는 표현
- 80 헛갈리기 쉬운 표현
- 88 수에 관한 표현
- 90 문장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쓰기

문장에 뜻을 더해 주는 표현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혼자 있기 싫은데,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2) 혼자 있기 싫은데, 집에 혼자 남도록 됐어요.

문제
풀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어떤 결과가 된 경우에는 '-게 되다'를 쓴다. 이 문장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혼자 남는 상황이 된 것을 표현한 것이므로 '-게 되다'를 쓴다.

정답. 1

1. -게 되다

- 1)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내가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되거나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표현한다.
(1) 경찰 아저씨가 도와줘서 길을 찾게 되었어요.
(2)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요.
- 2) 자신에게 좋은 일을 겸손하게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 이번엔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2) 수료식 때 상을 받게 되었어요.

용어 해설

'질문을 받아 주다'에서 앞에 나온 '받다'를 '본용언'이라고 하고 뒤에 나온 '주다'를 '보조용언'이라 한다. 본용언에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면서 도와주는 말이 보조용언이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티아라 씨는 친구를 자기 방에서 잤어요.
(2) 티아라 씨는 친구를 자기 방에서 자게 했어요.

문제
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는 문장은 '-게 하다'를 써야 한다. 이 문장은 티아라 씨가 친구에게 자기 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의미이므로 '-게 하다'를 써서 '자게 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2. -게 하다

- 1) (동사 뒤에 '-게 하다'를 붙여)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쓴다.
(1) 추운 날씨여서, 형이 동생에게 외투를 입게 했어요.
(2) 선생님께서 라발 씨에게 한국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 (2)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잘하면 싶어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고 싶다'를 쓴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므로 '-고 싶다'를 쓴다.

정답_1

3. -고 싶다

1)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 (1) 안산 외국인주민센터에 빨리 가고 싶어요.
- (2)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추측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싶다'에 '-겠-'을 붙이면 된다.

- (1) (나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겠다. (X)
- (2) (너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겠다. (O)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팜탄 씨는 지금 은행에 가고 있어요.
- (2) 팜탄 씨는 지금 은행에 가서 있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할 때에는 '-고 있다'를 쓴다. 이 문장은 팜탄 씨가 은행에 가는 중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고 있다'를 쓴다.

정답_1

4. -고 있다

1)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 엘레나 씨는 안산역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2) 저는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어요.

2) (시간이 짧은 행동을 표현하는 일부 동사에 붙어) 동작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광경인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

- (1) 창문 밖에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량위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 (2) 한국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3) 높임 표현은 '-고 계시다'를 쓴다.

- (1) 할머니께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세요.
- (2)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읽고 계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에리카 씨는 바빠서 이제야 밥을 먹나 봐요.
(2) 에리카 씨는 바빠서 이제야 밥을 먹어 봐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추측한 내용을 표현할 때에는 '-나 보다'를 쓴다. 이 문장은 밥을 늦게 먹는 에리카 씨를 보고 말하는 사람이 추측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나 보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5. -나 보다

- 1) (동사, '있다, 없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으로 미루어 추측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
(1) 한국어를 잘하나 봐요.
(2) 좋은 회사에 취직했나 봐요.
- ▶ 형용사, '이다, 아니다'는 '-은가 보다'와 결합한다.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에 '-었-'을 결합한 경우에는 '-나 보다'와 '-은가 보다'를 다 쓸 수 있다.)
(1) 아프나 보다(X) / 아픈가 보다(O) / 아팠나 보다(O)
(2) 학생이나 보다(X) / 학생인가 보다(O) / 학생이었나 보다(O)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집을 살 거예요.
(2)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져서 집을 살 거예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의 행위가 끝난 후 뒤 문장의 행위가 이어질 때에는 '-어 가지고'를 쓴다. 이 문장은 돈을 버는 행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집을 사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므로 '-어 가지고'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6. -어 가지고

- 1) (동사에 붙어) 앞 문장의 행위가 끝난 후 뒤 문장의 행위가 이어질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
(1) 과일을 씻어 가지고 오세요.
(2) 외국인주민센터에 가 가지고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 2) (동사, 형용사에 붙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
(1) 어제 잠을 못 자 가지고 피곤해요.
(2) 어제 회사 일이 바빠 가지고 연락을 못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할머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2) 할머니, 무엇을 도와 줄까요?

문제
풀이

높임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표현할 때에는 '-어 드리다'를 쓴다. 이 문장은 높임 대상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표현이므로 '-어 드리다'를 쓰는 것이다. '-어 주다(도와 주다)'의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답_ 1

7. -어 드리다

1) (동사에 붙어) 높임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쓴다.

- (1) 토모코 씨, 짐을 들어 드릴까요?
- (2) 저기에 가서 할머니를 도와 드리세요.
- (3)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 '-께 -어 드리다' 구성으로 많이 사용한다.

- (1)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 드렸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늘 빨래를 다 해 버렸어요.
- (2) 오늘 빨래를 다 해 있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를 완전히 끝냈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어 버리다'를 쓴다. 이 문장은 빨래를 완전히 다 했다는 뜻이므로 '-어 버리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8. -어 버리다

1) (동사에 붙어) 일을 아주 끝내거나 저질렀음을 나타낼 때 쓴다.

- (1) 회사를 그만뒀 버렸어요.
- (2) 피곤해서 그냥 자 버렸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외국인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 (2) 외국인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서 보세요.

문제
풀이

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한번 시도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어 보다'를 쓴다. 이 문장은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지 않은 상대방에게 상담을 시도하라는 뜻이므로 '-어 보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9. -어 보다

- 1) (동사에 붙어)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경험 삼아 시도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쓴다.
 - (1) 한번 먹어 봐요. 아주 맛있어요.
 - (2) 제주도에 가 봤어요.
- 2) (가끔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이전에 특별히 경험한 적이 있음을 표현한다.
 - (1) 옛날에 배고파 봤어요.
 - (2) 전염병으로 아파 봤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어요.
- (2)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고 있어요.

문제
풀이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낼 때 '-어 있다'를 쓴다. 이 문장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선 상태가 지속됨을 표현한 것이므로 '-어 있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0. -어 있다

- 1) (동사에 붙어)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지속됨을 표현한다.
 - (1) 쉰원 씨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 (2)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었어요.
- (2)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 했어요.

문제
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표현할 때에는 '-어 주다'를 쓴다. 이 문장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읽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므로 '-어 주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1. -어 주다

1)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쓴다.

- (1)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어요.
- (2)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신발을 신고 들어 와도 돼요.
- (2) 신발을 신고 들어 와서 돼요.

문제
풀이

어떤 일에 대해 허락함을 표현할 때에는 '-어도 되다'를 쓴다. 이 문장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오라는 허락의 뜻을 표현한 것이므로, '-어도 되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12. -어도 되다

1)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어떤 일을 허락할 때 쓰는 표현이다.

- (1) 여기에 앉아도 돼요?
- (2)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2) '-어도 되다'의 '되다' 대신에 '좋다, 괜찮다, 상관없다' 등을 쓸 수 있다.

- (1) 앉아도 상관없어요.
- (2) 먹어도 괜찮아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늘은 은행에 꼭 가야 돼요.
- (2) 오늘은 은행에 꼭 가야 있어요.

문제
풀이

꼭 해야 할 일을 표현할 때 '-어야 되다'를 쓴다. 이 문장은 오늘 은행에 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어야 되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13. -어야 되다

1) (동사에 붙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표현할 때 쓴다.

- (1) 돈을 벌려면, 취직을 해야 돼요.
- (2) 오늘은 집에서 청소해야 돼요.

2)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필수적인 상태 조건을 표현할 때 쓴다.

- (1) 이번에 살 집은 거실이 넓어야 돼요.
- (2) 행사 장소가 시원해야 돼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우리 엄마는 매운 음식 싫어요.
- (2) 우리 엄마는 매운 음식 싫어해요.

문제
풀이

다른 사람의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해요, 싫어-해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좋다, 싫다'에 '-어 하다'를 붙여서 표현해야 한다.

정답. 2

14. -어 하다

1) '좋다, 싫다, 즐겁다, 행복하다, 무섭다, 외롭다, 속상하다, 답답하다'와 같이 주로 심리를 나타내는 말들과 결합하여 느낌을 표현한다. ('좋다/싫다'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어 하다'를 붙인 '좋아-하다, 싫어-하다' 등은 그러한 느낌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어 하다'는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느낌을 표현할 때에도 쓸 수 있다.)

- (1) ㄱ. 나는 김치가 좋아요. (O)
 ㄴ. 우리 엄마는 김치가 좋아요. (X)
- (2) ㄱ.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O)
 ㄴ. 우리 엄마는 김치를 좋아해요. (O)

'엘마 씨, 결혼 안 해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애인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아요.
- (2) 애인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해요.

문제
풀이

'-지 않다'는 일반적인 부정을 표현하거나 행위자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하고, '-지 못하다'는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위자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불가능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위 문제의 경우에는 엘마 씨가 애인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지 못하다'를 써야 한다.

정답. 2

15. -지 않다/못하다

1) -지 않다: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일반적인 부정을 표현하거나 행위자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 (1) 오늘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동사)
- (2) 꽃이 예쁘지 않아요. (형용사)

2) -지 못하다: (동사와 함께 쓰여)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위자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불가능함을 표현한다.

(1) 시간이 없어서 설악산에 가보지 못 했어요.(O) (동사와 결합 가능)

(2) 꽃이 시들어서 예쁘지 못해요.(X) (형용사와 결합 불가능)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레단 씨, 앞으로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2) 레단 씨, 앞으로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문제 풀이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할 때에는 ‘-지 말다’를 쓴다. 이 문장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의미
이므로 ‘-지 말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6. -지 말다

1)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주로 사용한다.

(1)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아요.

(2) 오늘은 술을 먹지 마시다.

2) 주로 명령과 청유 표현에만 사용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평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가지 말아요 / 가지 말자.(O)

(2) 가지 말았다 / 가지 말았어요.(X)

자주 쓰는 표현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해야 해요.
- (2)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때문에 우산을 준비해야 해요.

문제
풀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때에는 '-기 때문에'를 쓴다. 이 문장은 우산을 준비해야 이유가 비가 오는 것이므로 '비가 오기 때문에'라고 해야 한다.

정답_1

1. -기 때문에 / [명사] 때문에

- 1) (동사나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일 때 쓴다.
 - (1) 요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요.
 - (2)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할 거예요.

▶ '-기' 대신에 명사를 쓸 수도 있다.

- (1) 비가 오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요.
- (2) 비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주민센터에 갔어요.
- (2) 한국어를 배워 위해 외국인주민센터에 갔어요.

문제
풀이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는 '-기 위해'를 쓴다. 이 문장은 한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외국인 주민센터에 갔다는 뜻이므로, '-기 위해'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2. -기 위해

- 1) (동사에 붙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 쓴다.
 - (1) 쉬기 위해 집에 갔어요.
 - (2)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 2)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1) 예쁘기 위해 화장을 했어요.(X)
 - (2) 따뜻하기 위해 옷을 입었어요.(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 (2) 밥을 먹는 전에 손을 씻어요.

문제 풀이 앞 문장 행위보다 앞서 뒤의 문장을 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기 전에' 표현을 쓴다. 시간상으로 먼저 손을 씻은 후 밥을 먹는 순서의 일인데, 이 문장은 밥을 먹는 뒤의 행동 전에 손을 씻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기 전에'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3. -기 전에

- 1) (동사에 붙어) 앞 문장 행위보다 앞서 뒤의 문장을 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사용 ([나중 행위]+'-기 전에' +[앞선 행동]의 구성임)
- (1)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시간 순서: 한국어 배우기 → 한국에 오)
 - (2)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시간 순서: 손을 씻기 → 밥을 먹기)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안산역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 (2) 안산역에서 친구와 만나 했어요.

문제 풀이 계획이나 약속 등으로 미리 정해진 일을 표현할 때 '-기로 하다'를 쓴다. 이 문장은 안산역에서 친구를 만날 계획이나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기로 하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4. -기로 하다.

- 1)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거나, 결심, 약속할 때 쓴다.
- (1) 친구를 만나서 안산에 가기로 했어요.
 - (2) 앞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 음식 먹어 좋아해요.
- (2)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요.

문제 풀이 어떤 문장을 한 낱말인 명사처럼 바꾸고 싶을 때에는 문장 끝에 '-는 것'을 쓰면 된다. 이 문장은 '저는 00을 좋아해요'와 같은 표현에서 '00' 자리에 '한국 음식을 먹다'라는 문장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이므로, 문장 끝에 '-는 것'을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준 것이다.

정답_ 2

5. -는 것

1) 문장 전체를 한 낱말인 명사처럼 바꿀 때 쓴다. 문장 마지막에 '-는 것'을 붙이면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만들 수 있으며, 명사와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주어]
- (2) 저녁에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목적어]
- (3) 제 취미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예요. [서술어]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회사에 가는 동안에 한국어 공부를 해요.
- (2) 회사에 가는 시간에 한국어 공부를 해요.

문제
풀이

어떤 행위를 하는 지속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는 동안'을 쓴다. 이 문장은 회사에 가는 행동을 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동시에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뜻이므로 '-는 동안에'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6. -는 동안에/동안

1)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일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표현할 때 쓴다.

- (1) 친구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 (2)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십시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 (2) 해야 할 일을 대해 설명해 줄게요.

문제
풀이

'-에' 앞의 내용을 대상으로 뒤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에 대해'를 쓴다. 이 문장은 '해야 할 일'을 대상으로 하여 '할 일'을 설명해준다는 뜻이므로 '-에 대해'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7. -에 대해/대해서

1) (명사에 붙어)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등의 말하는 행위 동사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주제)을 나타낼 때 쓴다.

- (1)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 (2)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 (명사에 붙어) '알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등과 같이 생각하는 행위 동사 앞에서 생각하는 내용(주제)을 나타낼 때 쓴다.

- (1) 한국어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 (2)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 '-에 대해/대해서' 대신에 '-에 관해/관해서'로 바꿔 써도 된다.

- (1) 드라마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요.
- (2) 베트남의 문화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크기에 따라 정리해야 해요.
- (2) 크기를 따라 정리해야 해요.

문제 풀이 '-에' 앞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뒤의 일이 이루어질 때 '-에 따라'를 사용한다. 이 문장은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에 따라'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8. -에 따라

1) (명사에 붙어) '-에'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뒤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용한다.

- (1) 지역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 (2)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국에 왔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청소기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아요.
- (2) 이 청소기는 가격을 비해 성능이 좋아요.

문제 풀이 '-에' 앞의 내용이 비교의 기준임을 표현할 때 '-에 비해'를 사용한다. 이 문장은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청소기의 성능이 좋다는 뜻이므로 '-에 비해'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9. -에 비해/비해서

1) (명사에 붙어) '-에' 앞의 내용이 비교의 기준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 (1) 나이에 비해 젊어 보여요.
- (2) 크기에 비해서 값이 싸군요.

2) (명사에 붙어) '-에' 앞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 (1) 한국에 비해 러시아는 매우 추워요.
- (2)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일이 쉬운 편이에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겨울은 매우 추울 거라고 해요.
- (2) 일기예보에 따라 올해 겨울은 매우 추울 거라고 해요.

문제
풀이

‘-에’ 앞의 내용이 뒤 문장의 근거일 때, ‘-에 의하면’을 사용한다. 이 문장은 올해 겨울이 매우 추울 것이라는 내용의 근거가 일기예보임을 표현한 것이므로, ‘-에 의하면’을 쓰는 것이다.

정답_ 1

10. -에 의하면

- 1) (명사에 붙어) 어떤 일의 사실이나 당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일 간 약을 먹어야 해요.
 - (2)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었어요.
- (2) 가뭄에 인해서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었어요.

문제
풀이

‘-으로’ 앞의 내용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일 때, ‘-으로 인해서’를 사용한다. 이 문장은 많은 농작물이 말라 죽은 이유가 가뭄 때문이라는 뜻이므로, ‘-으로 인해서’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1. -으로 인해서/인해

- 1) (명사에 붙어) ‘-으로’ 앞의 내용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임을 표현한다. (공식적인 표현에 자주 사용된다.)
 - (1)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 (2)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올해 휴가 때 베트남에 가면 좋겠어요.
- (2) 올해 휴가 때 베트남에 가면 하겠어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으)면 좋겠다’를 쓴다.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올해 휴가 때 베트남에 가는 것이므로 ‘-(으)면’ 앞에 원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다.

정답_ 1

12. -으면 좋겠다.

1)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어떤 일에 대한 바람을 표현할 때 쓴다.

- (1) 친구가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 좋겠어요. [동사]
- (2) 아들이 키가 좀더 크면 좋겠어요. [형용사]
- (3) 여기가 베트남이면 좋겠어요. ['이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 (2)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본 적이 했어요.

문제
풀이

과거에 경험한 일을 표현할 때 '-은 적이 있다'를 쓴다. 이 문장은 과거에 외국인주민센터에 가본 경험
이 있다는 뜻이므로 '-은 적이 있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3. -은 적이 있다.

1) (동사에 붙어) 과거에 경험한 일을 표현할 때 쓴다.

- (1)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 (2)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안산에 살아서 오래 됐어요.
- (2) 안산에 산 지 오래 됐어요.

문제
풀이

어떤 일을 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표현할 때에는 앞 문장에 '-은 지'를 쓴다. 이 문장은 안
산에서 생활을 시작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므로 '-는 지'를 쓰는 것이다.

정답_ 2

14. -은 지

1)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표현할 때 쓴다.

- (1) 한국에 온 지 두 달이 넘었어요.
- (2) 지진이 난 지 1년이 되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밥을 먹기 후에 산책을 해요.
- (2) 밥을 먹은 후에 산책을 해요.

문제 풀이

앞 문장 행위를 하고 나서 뒤의 문장 행위를 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은 후에' 표현을 쓴다. 이 문장은 밥을 먹고 나서 이어서 산책을 한다는 뜻이므로 '-은 후에'를 쓰는 것이다.

정답. 2

15. -은 후에 / -은 다음에

- 1) (동사에 붙어) 앞 문장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의 문장 일이 벌어진다는 뜻을 나타낸다.
((<[앞선 행동]+은 후에 +[나중 행동]>의 구성임)
(1)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에 왔어요. (시간 순서: 한국어 배우기 → 한국에 오기)
(2) 밥을 먹은 다음에 학교에 갔어요. (시간 순서: 밥을 먹기 → 학교에 가기)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 (2) 오늘은 비가 올 것 했다.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추측한 내용을 표현할 때 '-을 것 같다'를 쓴다. 이 문장은 오늘 비가 올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을 것 같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 1

16. -을 것 같다.

- 1)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와 결합하여) 말하는 사람이 추측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
(1) 넴코바 씨는 러시아에 갈 것 같아요. [동사]
(2) 올 겨울은 매우 추울 것 같아요. [형용사]
(3) 옷을 보니 학생일 것 같아요. ['이다']

'마이크 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올해에는 꼭 한국어 교사가 될 거예요.
- (2) 올해에는 꼭 한국어 교사가 돼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때에는 '-을 것이-'를 쓴다. 위 문제에서는 올해에는 한국어 교사 꼭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꼭 하겠어요,' '꼭 하겠습니다.'와 같이 동사에 '-을 것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1

17. -을 것이(을 거)-

1) (동사와 결합하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때 쓴다.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함, 동사와 결합 가능, 형용사와 결합 불가능)

(1) 내일은 꼭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말할 것입니다. (O) [동사]

(2) 내년에는 꼭 예뻐 거예요. (X) [형용사]

2) (동사와 결합하여 의문문 형식으로) 듣는 사람(상대방)의 의도나 의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주어가 2인칭(듣는 사람)임)

(1) 선생님, 언제 오실 거예요?

(2) 형, 지금 출발할 거야?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1)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와요.

(2)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문제
풀이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올 거예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어떤 일을 추측할 때에는 ‘-을 것이-’를 쓴다. 위 문제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내일 날씨를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이므로, ‘-을 것이-’를 써서, ‘비가 올 거예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2

18. -을 것이(을 거)-

1)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거나 일어날 일을 추측하여 표현할 때 쓴다.

<동사의 경우>

(1) 비행기 시간을 보니, 동생은 어제쯤 베트남에 도착했을 거예요. (과거 일 추측)

(2) 친구가 지금쯤 회사에 갈 거예요. (현재 일 추측)

(3)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미래 일 추측)

<형용사의 경우>

(1) 저 아이는 어렸을 때도 아주 예뻤을 거예요. (과거 상태 추측)

(2) 지금 서울 날씨는 매우 추울 거예요. (현재 상태 추측)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집에서 출발할 때 전화 주세요.

(2) 집에서 출발할 시간 전화 주세요.

문제
풀이

어떤 행동을 하는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을 때’를 쓴다. 이 문장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라는 뜻이므로 ‘-을 때’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19. -을 때

- 1) 어떤 일이 벌어진 시간을 표현한다.
 (1)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회사에서 퇴근할 때 연락을 주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2) 한국어로 대화할 수 해요.

문제
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할 때에는 '-을 수 있다'를 쓴다. 이 문장은 한국어로 대화할 정도로 능력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을 수 있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20. -을 수 있다.

- 1)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1)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2)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 2)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황이 가능함을 표현할 때 쓴다.
 (1) 이곳에 오래 있으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2) 여기 있으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비자 문제 때문에 베트남에 갈 수밖에 없어요.
 (2) 비자 문제 때문에 베트남에 갈 수밖에 있어요.

문제
풀이

'-을 수밖에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표현할 때 쓴다. 이 문장은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트남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므로 '-을 수밖에 없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1

21. -을 수밖에 없다.

- 1)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어) 어떤 행동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표현할 때 쓴다.
 (1) 전철과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2) 지진 때문에 일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 2) 어떤 일이 반드시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
 (1) 이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2) 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까 봐요.
- (2)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 봐요.

문제 풀이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를 할 마음이 조금 있음을 표현할 때에는 '-을까 보다'를 쓴다. 이 문장은 일을 그만두는 결정을 확실히 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을까 보다'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22. -을까 보다

1) (동사에 붙어)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를 할 마음이 조금 있음을 표현할 때 쓴다. 어떤 일에 대해 약한 의지를 나타낸다.

- (1) 일본어 공부나 할까 봐요.
- (2) 휴가 때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 봐요.

2)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에 붙고 '-을까 봐(서)'의 구성으로 쓰여) 걱정스러운 상황을 추측하여 표현할 때 쓴다.

- (1) 친구를 못 만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 (2) 매울까 봐 못 먹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올란 씨는 학생이 아니에요.
- (2) 올란 씨는 학생을 아니에요.

문제 풀이 '이/가' 앞에 붙은 말을 부정할 때 '-이/가 아니다'를 쓴다. 이 문장은 올란 씨가 '이/가' 앞에 붙은 학생 이 아님을 부정하는 표현이므로 '-이/가 아니다'를 쓰는 것이다. '학생이에요'의 부정 표현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정답_ 1

23. -이/가 아니다

1) (명사에 붙어) 문장을 부정할 때 사용한다.

- (1) 다오영 씨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 (2)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햇갈리기 쉬운 표현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내 가족은 필리핀에 있어요.
- (2) 우리 가족은 필리핀에 있어요.

문제
풀이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소유나 소속 등을 표현할 때, '내, 나의'보다는 '우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신이 속한 가족 구성원이나 집단, 국가 등을 표현할 때,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학교, 내 회사,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나라'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다.

정답. 2

1. 나 - 우리

- 1) '우리'는 '나'와 내가 속하는 집단을 표현할 때 쓴다. (1인칭인 '나'의 복수형이다.)
 - (1) 우리 축구팀은 올해도 안산시 축구대회에 참가했어요.
 - (2)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 2) 말하는 사람이 자기와 친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쓴다.
 - (1) ㄱ.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해요.(O)
 - ㄴ. 내/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해요.(?)
 - (2) ㄱ. 우리 남편은 친절해요.(O)
 - ㄴ. 내/나의 남편은 친절해요.(?)
 - (3) ㄱ. 우리 철수 착하지.(O)
 - ㄴ. 내/나의 철수 착하지.(X)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선생님, 내 남편은 정말 착해요.
- (2) 선생님, 저의(제) 남편은 정말 착해요.

문제
풀이

상대방이 존재 대상일 때에는 자신을 낮춰서 표현해야 한다. '나' 대신에 '저'를 쓰는 것이 맞다. 이 문장에서 상대방인 '선생님'은 존재 대상이므로, '나'가 아니라 '저'를 쓰는 것이다.

정답. 2

2. 나/내 - 저/저의(제)

- 1) '저'는 상대방이 존재 대상일 때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 (1) 나는 스물아홉 살이야.
 - (2) 저는 스물아홉 살이에요.
- 2) '저의/제'는 '나의/내'를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 (1) 나의/내 가방은 여기 있어.
 - (2) 저의/제 가방은 여기 있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애들아, 너 뭐하니?
- (2) 애들아, 너희 뭐하니?

문제
풀이

‘애들아’라는 표현에서 듣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임을 알 수 있다.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너희’ 또는 ‘너희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너희’는 ‘너’의 복수 표현이다.

정답_2

3. 너 - 너희

1) 너: 듣는 사람이 높임 대상이 아닐 때 쓰는 말이다.

- (1) 너는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 (2)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 (3) 누가 너에게 책을 주었니?

▶ 조사 ‘가’ 붙으면 ‘네’가 된다. (네가 먼저 해라.)

▶ 말할 때에는 ‘니’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니가 먼저 해라.)

2) 너희: ‘너희’는 ‘너’의 복수형으로, 듣는 사람들이 높임 대상이 아닐 때 쓰는 말이다.

- (1) 애들아, 너희는 모두 초등학생들이로구나.
- (2) 나는 너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해.
- (3) 애들아, 선생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어.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 (2) 이 회사에서 3년에 일했어요.

문제
풀이

일정 기간을 표현할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동안’을 쓴다. 이 문장은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므로 ‘동안’을 쓰는 것이다.

정답_1

4. 동안

1) 동안/동안을: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남을 표현할 때 쓴다.

- (1) 1시간 동안 낮잠을 잤어요.
- (2) 1분 동안 숨 쉬지 않았어요.

2) 동안/동안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남을 표현할 때 쓴다.

- (1) 휴가 기간 동안 베트남에 갔다 올 거예요.
- (2) 밥 먹는 동안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자흐라 씨는 한국어 선생님이 했어요.
- (2) 자흐라 씨는 한국어 선생님이 됐어요.

문제
풀이

동작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되다'를 쓴다. 이 문장의 경우는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되어서 된 것이므로 '되다'를 쓰는 것이다. 주로 '하다'가 능동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과 달리, '되다'는 피동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정답. 2

5. 되다

- 1) ('-이/가 -이/가 되다'의 형식으로)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게 됨을 표현할 때 쓴다.

- (1) 저는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2) 제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 2) ('-이/가 -이/가 되다'의 형식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 (1)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선생님, 맛있게 먹어요.
- (2)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 (3) 선생님, 맛있게 잡수세요.

문제
풀이

나보다 높은 사람의 먹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드시다, 잡수시다'를 써야 한다.

정답. 2, 3

6. 먹다 - 드시다 / 잡수시다

- 1) ('음식을) 먹다'의 높임말이다. '잡수시다'가 '드시다'에 비해 높이는 느낌이 더 강하다.

- (1) 할아버지, 맛있게 드셨어요/잡수셨어요?
- (2) 사장님, 이것 좀 드셔/잡쉴 보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있어요?
- (2) 바다가 없으면 뭐 있어요?

문제
풀이

사물에 대해 물어볼 때에는 '뭐'를 쓴다. '무슨'은 비슷한 말이지만 '무슨 물건이 있어요?'와 같이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

정답. 2

7. 뭐(무엇) - 무슨

1) 뭐: 모르는 일이나 물건을 물을 때 쓰는 말이다. ('뭐'는 '무엇'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1) 가방에 뭐(가) 있어요?

2) 무슨: 모르는 일이나 물건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다. '무슨 일', '무슨 물건'과 같이 뒤에 항상 명사가 나타나야 한다.

(1) 무슨 일이 있어요?

(2) 이것이 무슨 냄새인가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한국 뭐 여행했어요?

(2) 한국 어디 여행했어요?

문제
풀이

모르는 장소를 물어볼 때에는 '어디'를 쓴다. '뭐'는 모르는 일이나 물건에 대해 물어볼 때 쓰는 말이다.
이 문장은 한국의 여행 장소를 물어보는 문장이므로, '어디'를 쓴다.

정답_ 2

8. 뭐(무엇) - 어디

1) 뭐: 모르는 일이나 물건을 물을 때 쓰는 말이다. ('뭐'는 '무엇'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1) 냉장고 안에 뭐 있어요?

(1) 뭐를 찾고 있어요?

2) 어디: 장소를 물어볼 때 쓴다.

(1) 어디에 가세요?

(2) 명동이 어디예요?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뜰 때 올바른 표현은?

(1) 수고하세요.

(2) 먼저 가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먼저 가 보겠습니다.'나 '내일 뵙겠습니다'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정답_ 2

9. 수고하다

1) '수고하다'는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든다'는 뜻인데,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한나 씨, 수고하세요. (나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게)

(2) 안드레아 씨가 수고해 줬어요.

- ▶ ‘수고하세요’가 명령형이기도 하고, ‘수고’가 ‘고통을 받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뽀빠에게는 쓰지 않는다.

‘파티마 씨, 일요일에 안산에서 만날까요?’라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보세요.

- (1) 만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안 만나요.
(2) 만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못 만나요.

문제
풀이

‘안’은 일반적인 부정을 표현하거나 행위자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하고, ‘못’은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위자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불가능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위 문제의 경우에는 파티마 씨가 만나고 싶지만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못’을 써야 한다.

정답_ 2

10. 안/못

- 1) 안: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안’은 일반적인 부정을 표현하거나 행위자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1) 오늘 회사에 안 갔어요. (동사)
(2) 꽃이 안 예뻐요. (형용사)
- 2) 못: (동사와 함께 쓰여) ‘못’은 행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위자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불가능함을 표현한다.
(1) 오늘 아파서 회사에 못 갔어요. (O) (동사와 결합 가능)
(2) 꽃이 못 예뻐요. (X) (형용사와 결합 불가능)

음식이 맛있는 식당 안에 들어가서 말할 때 올바른 표현은?

- (1)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2) 거기 음식이 맛있어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장소를 표현할 때에는 ‘여기’를 쓴다. 이 문장의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 식당을 가리키는 경우이므로 ‘여기’를 쓰는 것이다.

정답_ 1

11. 여기 - 거기 - 저기

- 1) 여기: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 2) 거기: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 거기 있는 소금 좀 주세요.

3) 저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 강 건너에 있는 저기가 강남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한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에 계신 우리 엄마는 한국에 안 가고 싶어 해요.

(2) 한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에 계신 우리 엄마는 한국에 안 오고 싶어 해요.

문제
풀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오다'를 쓴다.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가다'를 쓴다. 이 문장의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엄마가 이동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가다'가 아니라 '오다'를 써야 하는 것이다.

정답_2

12. 오다 - 가다

1) 오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있는 쪽으로 움직여 이동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1) 아이가 집으로 오는 중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집에 있음)

(2) 남편은 지금 회사에 오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회사에 있음)

(3) 친구가 안산에 와요. (말하는 사람이 안산에 있음)

2) 가다: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동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1) 아이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집에 없음)

(2) 남편은 지금 회사에 가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회사에 없음)

(3) 친구가 안산에 가요. (말하는 사람이 안산에 없음)

베르보 씨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보타 씨가 베르보 씨에게 책을 빌릴 때 하는 말로 옳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 베르보 씨, 이 책 좀 빌려 주시겠어요?

(2) 베르보 씨, 그 책 좀 빌려 주시겠어요?

문제
풀이

지시의 의미를 지닌 '이, 그, 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구별해서 쓴다.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대상을 표현할 때 쓴다.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운 대상을 지시할 때 쓴다.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떨어진 대상을 표현할 때 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책은 듣는 사람인 베르보 씨와 가까이 있으므로 '이'가 아니라 '그'를 써야 한다.

정답_2

13. 이 - 그 - 저

<이>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 이 김치는 아주 매울 것 같아요.

(2)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1)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1) 그 책 좀 저에게 주시겠어요?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 제주도에 갔었어요. 그 곳에는 까만 돌이 많았어요.

<저>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 저기 저 사람이 담당자예요.

(2) 저 산에 가볼까요?

‘그것은 무엇이예요?’라는 질문에 올바른 답변은?

(1) 이것은 한국어 교재예요.

(2) 저것은 한국어 교재예요.

문제
풀이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사용하여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이것’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정답_ 1

14. 이것 - 그것 - 저것

1) 이것: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1) 이것은 연필이다.

2) 그것: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1) 선생님 옆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예요?

3) 저것: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1) 강 건너에 있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선생님, 편히 잤어요?

(2) 선생님, 편히 주무셨어요?

문제
풀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잠을 자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주무시다’를 써야 한다.

정답_ 2

15. 자다 - 주무시다

1) '주무시다'는 '잠을 자다'의 높임말이다.

- (1)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주무세요.
- (2) 부모님께서서는 주무시는 중이에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죽으셨어요.
- (2)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문제
풀이

높임 대상에게는 '죽다'라는 말 대신에 '돌아가시다'라고 해야 한다. '돌아가시다'는 '죽다'의 높임말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높임 대상이므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정답_2

16. 죽다 - 돌아가시다

1) '돌아가시다'는 '죽다'를 높여서 말할 때 쓴다.

- (1) 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 (2) 부모님께서서는 돌아가셨어요.

▶ '돌아가시다'와 같이 항상 높임을 표현하는 '-시-'가 결합된 형태로 쓴다.

- (1) ㄱ. 사장님께서 돌아갔어. (X)
- ㄴ. 사장님께서 돌아가셨어. (O)

남편의 직업을 묻는 질문으로 올바른 표현은?

- (1) 남편이 무슨 일이에요?
- (2) 남편이 무슨 일 해요?

문제
풀이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에는 '-하다'를 쓴다. 이 문장은 '일'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지닌 말에 '-하다'가 붙어서 일을 수행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_2

17. 하다

1)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명사가 지닌 움직임을 수행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 (1)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해요.
- (2) 매일 운동해요.

수에 관한 표현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 애기 두 개 있어요.
(2) 저 애기 두 명 있어요.

문제
풀이

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위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른 말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수를 표현할 때에는 ‘-명’을 쓰고 물건의 수를 표현할 때에는 ‘-개’를 쓴다. 동물의 수를 표현할 때에는 ‘-마리’를 쓴다. 이와 같이 대상에 따라 수량을 표현할 때 써야 하는 말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답. 2

1. 수량 단위 의존 명사

- 1) 일반적으로 [[종류 명사] - [수 관형사] - [수량 단위 의존 명사]] 형식으로 표현한다.
(1) 학생 다섯 **명**
(2) 사과 **2개** ('사과 둘 개'가 아니라 '사과 두 개'로 읽어야 함)

<수량 단위 의존 명사의 예>

구분	단위 의존 명사	예시
사람	명, 사람, 분	학생 다섯 명, 어른 다섯 사람, 손님 세 분
동물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까치 열 마리
물건	개	안경 열 개, 큰 물건 다섯 개
나무	그루	나무 다섯 그루
자동차	대	자동차 세 대
금	돈	금 한 돈
옷	벌	옷 한 벌, 바지 두 벌
나이	살 / 세	열 살, 스물다섯 살, 서른세 살 / 이십오 세, 삼십삼 세
필기구	자루	연필 한 자루, 볼펜 두 자루
집	채	집 한 채, 아파트 두 채
아파트	동	아파트 열 동
신발	켤레	구두 한 켤레, 운동화 세 켤레
배추	포기	배추 한 포기
고기	근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두 근
책	권	책 한 권, 책 열 권
학년반	학년, 반	일학년 육반, 삼학년 오반
한국화폐	원	십원, 백원,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우리 애는 지금 다섯 살이에요.
- (2) 우리 애는 지금 오 살이에요.

문제
풀이

일반적으로 숫자 다음에 나오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고유어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일, 이, 삼'으로 표현하면 어색하다.

정답_1

2. 숫자 말하기

1) 일상생활에서 물건의 수를 말할 때에는 '하나, 둘, 셋...'과 같이 말한다. (적은 수는 '하나, 둘, 셋...'과 같이 표현하고, 큰 수는 '백십, 백이십...'과 같이 쓴다.)

- (1) ㄱ. 사과 세 개를 샀어요. (O)
- ㄴ. 사과 삼 개를 샀어요. (X)

2) 일반적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고유어이면 '하나, 둘, 셋...'과 같이 표현하고,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한자어이면 '일, 이, 삼...'과 같이 표현한다.

- (1)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고유어인 경우
 - ㄱ. 소 두 마리, 옷 다섯 벌, 나무 세 그루, 밥 한 그릇(O)
 - ㄴ. 소 이 마리, 옷 오 벌, 나무 삼 그루, 밥 일 그릇(X)

- (2)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한자어인 경우
 - ㄱ. 십오 원, 팔월 십오일, 이십 분(시간 단위), 사 년 육 개월(O)
 - ㄴ. 열다섯 원, 여덟 월 열다섯 일, 스무 분(X), 네 년 여섯 개월(X)

3)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하나, 둘, 셋'과 같이 표현한다.

- (1) ㄱ.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O)
- ㄴ. 사과 일에 얼마예요? (X)

문장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쓰기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부모님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 (2)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문제
풀이

동작의 직접 대상이 나보다 존대 대상일 때, '데리다'라는 동사는 '모시다'라는 특수한 다른 동사 형태로 바뀌어 표현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부모님'은 존대 대상이므로 '모시다'라는 동사를 써야 한다.

정답. 2

1. 객체 존대(특수 어휘)

1) 동작의 직접 대상(목적어)이 존대 대상일 때에는 특수한 동사를 써야 한다.

- (1) 데리다 → 모시다
사장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 (2) 보다 → 뵈다, 뵈다
한국에서 선생님을 뵈니 정말 행복해요.
직접 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부사어)이 존대 대상일 때에는 특수한 동사를 써야 한다.

- (1) 주다 → 드리다
저는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드렸어요.
- (2) 묻다 → 여쭙다, 여쭙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어(여쭙) 보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저쪽에 큰 거 사이즈 있어요.
- (2) 저쪽에 큰 사이즈 있어요.

문제
풀이

위와 같은 문장은 '큰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큰 사이즈'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큰 거'의 '거'와 '사이즈'는 같은 것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두 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2

2. 관형절-명사절

1) 관형절: 문장 전체를 관형사처럼 만든 표현. [문장+은/는/을+명사(것)]

술을 자주 마신다.(문장) → 자주 마시는 술 (관형절 + 명사)

[자주 마시]+는+ [술]

[문장] +은/는/을 + [명사]

(관형절을 사용한 예문) 자주 마시는 술이 뭐예요?

2) 명사절: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만든 표현. [문장]+음/기

독한 술을 마시다.(문장) → 독한 술을 마시기(명사절)

[독한 술을 마시] + 기

[문장] +음/기

(명사절을 사용한 예문) 독한 술을 마시기가 힘들어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한국 와서 제일 기쁜 일이 우리 딸 낳았어요.

(2) 한국 와서 제일 기쁜 일이 우리 딸 낳은 것이예요.

문제 풀이 이 문장은 'A가 B이다'라는 문장 구성이다. A는 기쁜 일이고 이 기쁜 일을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B는 딸을 낳은 일이다. 따라서 '제일 기쁜 일(A) 딸을 낳은 것(B)이다'와 같은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1)의 경우는 '제일 기쁜 일(A) 딸을 낳았어(B)'와 같이 '-이다'가 빠진 구성이므로 어색하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쁜 일이라는 행위자가 딸을 낳았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정답_2

3. 주어-서술어 호응

1) 주어-서술어 호응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는 'A가 B이다' 구성에서 A나 B가 길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B-이다'가 잘못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예요. (O)

[A는] [B-이다.]

(2) ㄱ.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음식이 값도 싸고 매우 맛있어요. (X) ['B-이다'가 없음]

⇒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음식이 값도 싸고 매우 맛있기 때문이에요. (O)

ㄴ. 친구와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과 모자를 사요. (X) ['B-이다'가 없음]

⇒ 친구와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과 모자를 사는 거예요. (O)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1) 너 매운 거 싫어요?

(2) 너 매운 거 싫어?

문제 풀이 듣는 사람이 높임 대상이면 문장을 끝낼 때 '-어요'로 표현하고, 높임 대상이 아니면 '-어'를 쓰면 된다. 이 문장에서 듣는 사람인 '너'는 높임 대상이 아니므로 문장을 끝낼 때에는 높임의 '-어요'가 아니라 그냥 '-어'를 쓰면 된다. 만약 상대방이 높임 대상이라면 '줄리 씨는 매운 거 싫어요?'와 같이 표현하면 된다.

정답_2

4. 높임 표현의 호응

1) 듣는 사람이 높임 대상이면 존댓말을 쓴다.

(1) 어머니, 과일 드세요.(O)

(2) 어머니, 과일 먹어요.(X)

(3) 어머니, 과일 먹어.(X)

2) 듣는 사람이 높임 대상이 아니면 반말을 쓴다.

- (1) 친구야. 여기에 와서 과일 먹어.(○)
(2) 친구야, 여기에 와서 과일 드세요.(×)

올바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 (1) 설악산에 전혀 가봤어요.
(2) 설악산에 전혀 못 가봤어요.

문제
풀이

‘전혀’와 같은 말은 긍정 표현과 어울릴 수 없고, 항상 부정 표현과 함께 써야 한다. ‘전혀’라는 말이 나타나면 ‘안, 못, 않다, 못하다, 없다, 아니다, 모르다’ 등과 같은 부정 표현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설악산에 전혀 못 가봤어요’나 ‘전혀 안 가봤어요’, ‘설악산에 전혀 가본 적이 없어요.’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정답_2

5. 부정 호응

1) 반드시 부정 표현과 어울려야 하는 말은 ‘전혀, 결코, 별로, 아무도, 하나도, 한번도, 조금도’ 등이 있다.

- (1) ㄱ. 전혀 밥을 먹지 않았어요.
 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ㄷ. 음식이 별로 없어요.
 ㄹ.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ㅁ. 그 친구를 한번도 못 만났어요.
 ㅂ.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ㅅ. 조금도 안 놀랐어요.

2) ‘하나도, 한번도, 조금도, 아무도’의 경우는 항상 끝에 ‘-도’가 결합된 형태로 써야 부정 표현과 어울릴 수 있다. 이와 달리, ‘-도’가 없는 ‘하나, 한번, 조금’ 등은 긍정이나 부정 표현과 모두 함께 쓰일 수 있다.

- (1) ㄱ. 하나도/한번도/조금도 먹었어요.(X)
 ㄴ. 하나도/한번도/조금도 안 먹었어요.(O)
(2) ㄱ. 하나/한번/조금 먹었어요.(O)
 ㄴ. 하나/한번/조금 먹지 않았어요.(O)

찾아보기

가	5	-는 동안(에)	72
가다	85	는	17
거기	84	-는	59
-거나	36	-는다고	47
-거든	52	-는다면	51
-거들랑	52	-는대(요)	35
-게 되다	62	-는데	43
-게 하다	62	-는지	35
-게	49	-다가	42, 46
-겠-	32	-다고	47
고	26	-다면	51
-고 싶다	63	-대(요)	35
-고 있다	63	-더니	41
-고	36, 40	-더라도	54
-고서	40	-던	60
과	21	도	17
그	85	-도록	50
그것	86	돌아가시다	87
-기 때문에	70	동안	81
-기 위해	70	되다	82
-기 전에	71	드리다	90
-기-	28, 29	드시다	82
-기	57	-든지	37
-기로 하다	71	-듯이	55
까지	20	를	7
깨	12	라고	26
깨서	6	-라고	47
-ㄴ대(요)	35	-라면	51
-나 보다	64	-래(요)	35
나	24	-리-	28, 29
내	80	마다	18
-냐면	52	만	18
너	81	먹다	82
너희	81	모시다	90
-느라고	46	못	84
-는 것	72	무슨	83

찾아보기

무엇	83	여쭙다	90
뭐	83	오다	85
밖에	19	와	21
뵙다	90	-우-	29
부터	20	-으나	39
서	6	-으니	44
수고하다	83	-으니까	45
-습니까	34	-으러	48
-시-	30	-으려고	48
안	84	-으로 인해서/인해	74
-어 가지고	64	으로	13, 14, 15
-어 드리다	65	-으면 좋겠다.	75
-어 버리다	65	-으면	51
-어 보다	66	-으면서	37
-어 있다	66	-으므로	45
-어 주다	67	-으세요	34
-어 하다	68	-은 다음에	76
-어(요)	33	-은 적이 있다	75
-어다가	41	-은 지	75
-어도 되다	67	-은 후에	76
-어도	54	은	17
어디	83	-은	59
-어서	44	-은데	43
-어야 되다	67	-은지	35
-어야	53	-을	60
-어야지	53	-을 것 같다.	76
-었-	31	-을 것이(을 거)-	77
-에 대해/대해서	72	-을 것이(을 거)-	77
-에 따라	73	-을 때	78
-에 비해/비해서	73	-을 수 있다.	78
-에 의하면	74	-을 수밖에 없다.	78
에	10, 11	을	7
에게	12	-을까 보다	79
에다가	13	-올래야	49
에서	10	-음	58
여기	84	의	8

-이/가 아니다	79
-이-	28, 29
이	5
이것	86
이나	24
이다	9
이랑	22
자다	87
-자마자	38
잡수시다	82
저	80, 85
저것	86
저기	84
저의	80
제	80
주무시다	87
죽다	87
-지 말다	69
-지 못하다	68
-지 않다	68
-지	56
-지만	38
처럼	15
-추-	29
하고	23
하다	87
한테	16
-히-	28, 29

외국인이 들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

발 행 일 | 2017년 12월

발 행 처 | 경기도 문화정책과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로 55

전 화 | 031-400-4513

홈페이지 | <http://hkli.hanyang.ac.kr>

집 필 | 임유종 연구원(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A004401@hanyang.ac.kr)
백경미 연구원(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bgm@hanyang.ac.kr)

감 수 | 이필영 교수(한양대학교)
김태경 교수(한양대학교)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

한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국제문화관 7-309-1호
TEL. 031-400-4513